



국민권익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

2012 vol.25 03+04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여러분과 함께하는
범정부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입니다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www.acrc.go.kr



국민권익위원회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당신의 양심을 지켜드립니다

안심하세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 보호 조치 : 신분비밀보장, 신분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보상 지원 :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 지급
- 법적 책임 감면 : 직무상 비밀준수의무 면제,
신고자의 범죄 혹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징계의 감면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량식품 제조·유통, 폐기물 불법 매립, 가짜 냉매가스 판매, 의약품 리베이트, 가격 담합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
안심하고 상담하세요.

110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homepage : www.acrc.go.kr

03+ 04

국민권익
익을 잃어 가는 나라, 깨끗한 사회

A Bimonthly Magazine of ACRC
2012 VOL.25 03+04

발행일 2012년 4월 5일
(격월간, 통권 25호, 비매물)

발행인 김영란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편집인 최학균

주소 120-705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군동)

전화 02-360-2761

팩스 02-360-3520

홈페이지 www.acrc.go.kr

블로그 blog.daum.net/loveacrc

트위터 twitter.com/loveacrc

페이스북 www.facebook.com/loveac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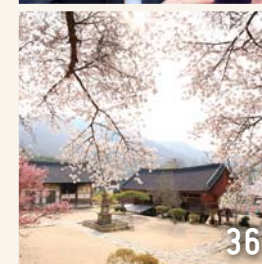
기획 | 디자인 | 인쇄 조선뉴스프레스

외부필자의 원고는 위원회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 / 획 / 특 / 집

- 02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출판 4년의 성과
인원은 14% 줄고 민원처리 39% 늘어
- 06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인터뷰
“전 국민 민원 AS기관으로 자리매김했어요”
- 08 이슈 |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
개인 81명·단체 11곳 수상
- 12 전문가 제언
‘부정청탁 방지법’에 국민적 관심을



CONTENTS



공 / 감 / 누 / 리

- 14 포커스
‘부정청탁 방지법’ 2차 토론회
- 16 우리 이렇게 일해요 - 권익제도기획관
보완해야 할 행정제도 찾아내 개선 권고
- 18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110 국민콜’ 홍보대사 이선영 아나운서
- 20 글로벌 권익위
이동신문고 세계를 향해 ‘활짝’
- 22 글로벌 권익위
G20국가들과 부패방지 국제공조 확대

소 / 통 / 누 / 리

- 24 국민권익위가 갑니다
강원내륙에 권익위가 떴다
- 28 광주 조정회의 현장
지자체·공기업 한 발씩 양보한 ‘공생’
- 32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용역 등 주민 민원 3건 해결
- 34 블로그 기자단
“민감한 기사도 ‘갯’없이 격려해줘 감사”

행 / 복 / 누 / 리

- 36 여행 | 변산반도
전나무숲 거닐며 봄의 입맛을 되찾다
- 40 시네마 토크 | <달팽이의 별>
장애인 부부의 삶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다
- 42 건강 다이어리
뇌를 쓰고, 견재 왔던 치매도 도망간다
- 44 역사속 권익-암행어사
왕의 바른 눈과 귀, 민중들에겐 구원자
- 46 스포츠
한국 축구 뒤에는 ‘용감한 두 감독’
- 48 컬처&컬처
지금은 미술 시대
- 52 알아두세요
만 0~5세 유아 보육료 순차 전 계층 지원
- 53 이 한권의 책 | <논어의 발견>
귀에 속 들어오는 ‘공자님 말씀’
- 54 뉴스&피플
- 56 독자와의 대화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맞으며 국민신문고 대상'도 4회째를 맞았다. 지난 2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

국민권익위원회
통합출범
4년의 성과

인원은 14% 줄고 민원처리는 39% 늘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출범 4주년을 맞았다. 2008년 2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통합해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는 통합 전보다 적은 인원으로 훨씬 높은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4년 만에 종합적 국민권익보호기관으로 자리 잡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성과를 돌아봤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서경의 기자



통합 후 4년간 위원회의 업무 성과를 평가하는 잣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합 전후를 비교할 때 대부분의 업무 성과 지표들이 과격적으로 개선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통합 이후 통합 전보다 평균 약 40% 이상 증가된 고충민원과 행정심판사건을 처리했다. 또 업무 간 연계를 통해 고충처리 업무의 정책적 발전, 제도개선 업무의 효율성 향상, 그리고 행정심판의 권리구제적 성격 강화와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

민원만족도
62점에서
75점으로 향상

대표적으로 3개 기관 통합 후 가장 발전된 부분은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민원을 해결하게 된 것이다. 위원회 출범 전인 2007년에는 3개 기관의 직원 수 총합이 542명으로 모두 4만6,000여 건의 고충민원과 행정심판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통합 후 3년이 지난 2011년에는 그보다 76명이 적은 466명으로 39%나 많은 6만 4,709건의 민원을 처리했다. (표 참조)

통합 후 접수된 민원 건수가 대폭 증가했는데, 이는 조직 통합과 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라 국민의 기대감이 상승한 한편 민원창구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되는 등 다양한 원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했다.

국민권익위 4년의 변화

구분	직원수	고충처리건수	행정심판건수	110안내전화 건수
통합 전(2007)	542명	2만3,373건	2만3,178건	89만8,244건
통합 후(2011)	466명	3만4,510건	3만199건	196만2,545건

또 접수된 민원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된 원인은 기존 3개 위원회의 기능 간에 인력과 시설, 정보를 공유하게 됐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총무·인사·국제교류 등 각종 지원 업무들이 통합돼 인력 절감이 가능해졌고, 남은 인원은 민원처리 업무에 투입해 전체적으로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됐다.

그뿐만 아니라 더 적은 인원으로 증가된 민원을 처리하면서도 민원처리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2007년과 지난 4년간 평균을 비교하면 고충민원 평균 처리기간이 31일에서 22일로 단축됐으며, 민원만족도는 62점에서 75점으로 향상됐다. 행정심판 평균 재결기간은 2007년 82일에서 2011년 79일로 단축됐으며, 구술심리율은 16.2% 현장 증거조사율은 21.8%가 각각 증가됐다.

민원처리의 효율성이 높아진 것뿐만 아니라 국민권익 보호 측면에서 권익위의 업무수준이 높아졌다는 것 역시 통합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고충처리와 행정심판은 행정의 위법 및 부당에 대한 행정부 내 자기 교정제도이자 국민의 권익구제 제도와 본질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처리 절차나 구제 원칙 수립과 같은 분야에서 상호 연관성 및 배울 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부패방지 업무는 정책적·통제적 성격이 강하므로 고충예방 정책 업무에 활용될 소지가 풍부하다. 따라서 세 기관의 통합 이후 3개 기능의 상호 보완이

숫자로 보는 국민권익위원회 2011 백서



이뤄지면서 업무처리 절차가 훨씬 매끄러워지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정심판, 청구인 중심 운영도 큰 변화

● 실제로 통합 후 고충민원업무에 정책적 기능이 보완, 강화됐다. 통합 후 고충처리국(기존 고충처리위원회)과 부패방지국(기존 청렴위원회) 간 활발한 인사교류로 정책적

성격이 강한 부패방지업무의 방법론이 고충처리분야에 접목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충민원컨설팅이다. 고충민원컨설팅은 2009년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했으며 2010년에는 모델을 개선하고 대상 기관수를 10개로 확대했다.

고충민원처리와 행정심판 업무의 관계도 앞으로 더욱 향상될 전망이다. 통합 전 고충처리는 권익구제의 성격, 행정심판은 행정의 정당성에 대한 통제의 성격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통합 후 권익구제가 강조되면서 행정심판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가장 큰 변화는 행정심판이 과거에 비해 청구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행정심판에서는 운전면허 취소관련사건 등 생계형 사건에 대한 처벌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현장 구술청취가 활성화됐으며,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제도가 도입됐다. 또 임시처분제도 도입 등으로

청구인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됐고,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공정성 제고를 골자로 한 행정심판법 제정도 이뤄졌다.

이밖에 통합 후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가 민원정보 분석이다. 통합 이전에는 단지 고충민원 접수 및 통계 관리 수준에 머물렀던 민원정보업무가 통합 후 민원정보분석센터 신설과 함께 정책적 업무로 전환됐다.

권익위의 국민신문고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 연간 100만여 건의 민원 내용을 정리해 부처에 제공함으로써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참고하도록 하는 초보적인 민원정보분석 업무가 2008년부터 시작했다.

2011년에는 보다 정교한 민원정보 분석 방법론을 개발해 관련 부처에 체계적인 민원 정보를 제공했고, 지금까지 35건의 정책제안과 제도개선안을 제시했다. 또 주간 단위로 민원동향분석 보고서를 전 정부 부처에 제공해 고충 및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한편 조직 통합 이후 제도개선은 그 효과가 가장 직접적으로 크게 나타난 분야다. 제도개선업무는 개선과제 발굴-실태조사-권고-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업무프로세스의 성격상 조직 통합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통합 전에는 이들 업무가 독자적으로 수행됐지만 통합 후에는 업무 간에 공동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실태조사와 이행점검도 통합적으로 수행하게 돼 업무의 질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졌다.

제도개선 조직은 2008년 위원회 출범 직후 제도개선기획과·제도개선과·민원제도개선과 3개 부서로 출발했고, 현재는 제도개선의 총괄 및 조정 능력 강화를 위해 사무처장 직속으로 권익제도기획관이 신설되는 한편 제도개선총괄담당관·경제제도개선담당관·사회제도개선담당관 등 3개 부서

로 새롭게 개편됐다. 제도개선 전담부서가 만들어지면서 고충처리·부패방지의 통합 및 복합과제 추진이 가능해졌고, 결재단계 단축으로 신속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그뿐만 아니라 고충민원, 부패신고, 행정심판, 민원정보 등 제도개선 발굴원이 다양해진 점도 제도개선 건수 증가에 큰 보탬이 됐다.

부패방지업무 2011년부터 고무적 성과

● 한편 부패방지업무 성과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공직자 행태변화를 볼때 통합 초기 3년간의 결과는 아쉬움이 없지 않았다. 각종 교육, 캠페인 등 물량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공직자의 행태 변화는 다소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부터 행태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위원회는 2011년 하반기부터 솔선수범 차원에서 청렴교육 외부강의 대가를 받지 않기로 했으며, 다른 행정기관에 대해서도 외부강의 대가 기준을 마련해 올해 초에 권고할 예정이다. 그동안 과도한 외부강의 대가가 뇌물 공여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정규 급여외 이중 수혜라는 점에서 국민의 따가운 비난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공직자가 외부강의 대가를 거절하거나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분명한 행태 변화로 공직사회와 민간부문 모두에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또다른 대책으로 2011년 초부터 추진해온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가칭)' 제정을 들 수 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법의 허점을 이용한 다양한 부패 행태들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패한 공직자와 정부는 개인에게 불이익과 고충을 끼치는 만큼 부패한 공무원, 무사안일한 공무원, 특정업자와 유착한 공무원 등을 없애기 위해 담당공무원 교육과 고충민원 컨설팅 등으로 위원회가 부패 방지에 앞장설 예정이다.

‘한국적 국민권익보호’ 모델 정립이 과제

● 지난 4년간의 성과를 발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한 단계 발전된 국민권익보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세 기관의 통합에서 나아가 기능 간 연

계와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차원의 권익보호를 펼칠 시점이 된 것이다. 그동안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통합에 따른 업무 간 부조화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성공했다면, 다음 단계는 3개 기능의 각개 약진에서 벗어나 통합 위원회다운 국민권익보호 정책과 업무를 개발해야 한다.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른 권익구제 수요 증가와 세계적 차원의 경제위기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국민 중심의 권익보호 업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육성, 사회적 갈등의 조정과 치유 등 권익위가 선진국가 도약 차원에서 담당해야 할 임무와 사명은 매우 크고도 무겁다.

언뜻 이질적으로 보이는 고충처리·부패방지·행정심판을 한데 묶은 지난 4년간의 경험은 이 3가지 업무가 국민 권익이라는 지향점 아래 충분히 통합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따라서 기존 업무의 연계와 융합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 권익보호 업무를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 '한국적 국민권익보호'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부터 짚어야 할 역사적 책무라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을 지낸 박재영 사무처장은 누구보다 권익위의 통합 시너지 효과를 몸소 체험하고 있는 인물이다. 박 사무처장은 “고충위·청렴위·행심위 등 3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권익위는 지난 4년간 적극적이고 다양한 국민권의 보호 노력을 전개해 왔다”면서 “그동안 3개 기관을 통합하고 보니 고충신고, 부패신고 등 민원들이 한 곳에서 모두 처리돼 국민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정부도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고 그 결과는 각종 지표와 수치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권익위의 민원 처리는 민원창구 일원화에 따른 접근성 개선이나 인지도 상승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2011년 통합 전인 2007년 542명보다 76명이 적은 466명으로 31퍼센

트 증가된 6만1,005건의 민원(고충민원, 행정심판)을 직접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신문고는 93퍼센트 증가한 107만건, 110국민콜은 143% 증가한 218만건을 각각 처리했다. 통합 전보다 통합 후가 민원 만족도도 62점에서 75점으로 높아졌다.

‘억울함이 없는 나라’는 권익위의 슬로건인데 우리 사회에 억울함을 외치는 사람은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근무하시면서 느끼신 소화가 궁금합니다.

“최근 국제적으로 미국, 유럽의 젊은이들이 자국 경제상황에 따른 불만을 크게 표출하는 등 세계적 경제위기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서민들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해결해야

박재영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전 국민 민원 AS기관으로 자리매김했어요”

지난 3월 13일 서울 서대문 권익위 사무실에서 만난 박재영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출범 4년을 넘어선 권익위는 신생 기관으로서의 조직적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형 권익보호 기관으로, 전 국민의 민원 애프터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권익위는 앞으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미디어와의 소통 노력을 통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기관으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글·오동룡 기자/사진·김승원 기자

하는 권익위의 사무처장으로서 느끼는 책임감은 매우 큼니다. SNS의 발달로 시공(時空)을 초월한 각계각층의 불만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자치비서관으로 계시다가 권익위 사무처장으로 부임하신 지 4개월째라고 들었습니다. 근무하시면서 아쉬웠던 점은 없습니까.

“그동안 권익위가 추진해온 많은 노력에 비해 성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점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물론 권익위에 대한 각계각층의 평가를 겸허하게 수용하면서 더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새로이 출범한 권익위의 기능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도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국민들에게 권익위라는 존재가 각인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직도 권익위와 인권위를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제가 부임할 때 집사람 친구들이 ‘인권위 부위원장으로 가게 돼 축하한다’는 전화를 하더라고요. 며칠 후 모 일간지에 제 관련 기사가 크게 났다는 연락을 받고 서둘러 확인해보니 ‘인권위 출범 10주년’ 특집기사였어요. 지금까지의 홍보를 전면적으로 바꿔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권익위가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추고 있어도 국민들이 권익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렵니까.

“적극적·능동적 홍보로 전면 개편해가고 있습니다. 홍보 전문가를 영입하고,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에 홍보전략회의를 합니다. 법원에 공보판사가 있듯, 행정심판의 경우 아예 공보행정심판 과장이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했습니다. 매일 보도자료 배포하고, e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SNS 등 뉴 미디어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SNS기반 인터넷 매체인 위키트리 OPM(1인 미디어) 데스크 활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권익위 고충처리 부위원장도 겸하고 계십니다. 취임 후 고충민원 해결과정에서 어떤 점을 느끼셨습니까.

“국민들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억울함을 당했으며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권익위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신문고로 접수되는 민원의 90% 이상을 권익위가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익위는 현지조사, 이동신문고, 조정회의

고충민원 처리 지표 4년간 비교

구분	2007년(통합 전)	2008~2011년(4년 평균)	증감
접수량	23,681건	30,542건	37% 증가
처리량	23,373건	30,566건	37.3% 증가
인당 처리량	186건	285건	53.2% 증가
평균처리기간	31.6일	22일	6일 단축
수용률(누적)	83.2%	92.0%	9%p 증가
만족도	62.8점	75.8점	13.0점 증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의 고충을 직접 듣고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하려 노력하고 있어요.

특히 기억에 남을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난해 12월 강원도 고성군 주민들이 ‘청간 해변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달라’는 집단민원을 냈는데, 그것을 해결했습니다. 청간해변은 관동팔경인 청간정(淸澗亭) 문화재와 청정백사장이 있는 관광지입니다. 1971년 설치한 군용 철책으로 40여 년 동안 인근 주민들도 해변 출입을 자유롭게 못했고, 청간정 관광객들이 해변을 이용하지 못해 지역경제가 어려움이 많았답니다. 권익위는 군부대, 강원도, 고성군과 3개월 동안 협의를 거쳐 경계용 철책 132m를 철거하고 최신행 감시 장비를 설치토록 조정했습니다. 군은 경계 작전을 보장받을 수 있었고, 고성군 주민들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부정한 청탁관행을 없애기 위해 권익위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해 8월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의 84.9%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직자의 부패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공직자의 청렴성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 근원에는 고질적인 알선·청탁 관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 역시 우리 사회의 학연·지연 등과 결부된 알선·청탁 관행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밀화·고도화되는 공직자의 사익추구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한 청탁관행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동등~ 신문고 소리와 함께 따뜻하고 깨끗한 세상이 널리 퍼지길.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이 2월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에 앞서 신문고를 울리며 제4회 국민권익의 날을 선포하고 있다.

국민권익·청렴문화 기여 개인 81명·단체 11곳 수상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 2월 27일 '국민권익의 날' 선포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9일 서울 중구 태평로1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 자리에서 사회 전반에 올바른 권익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정착시키고, 선조들의 지혜로운 위민정신을 올바른 권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언했다.

글·박경아 기자/ 사진·서경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1년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시상식'을 열고 개인 81명과 단체 11곳에 대해 녹조근정훈장, 국민훈장목련장, 근정포장, 국민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표창 등을 시상했다.

이 상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09년부터 국민권익 증진과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관과 개인을 선정해 포상하고 있으며 옴부즈만과 부패방지, 민원업무 3개 부문에 걸쳐 개인 81명, 단체 11곳에 대해 시상됐다. 개인 수상자들은 ▲옴부즈만 부문 12명 ▲민원업무 부문 33명 ▲부패방지 부문 36명이었다.

녹조근정훈장 김경수 서울시민감사 옴부즈만

입찰 담합 포착 26억 과징금·99억 예산 절감
이날 시상식에서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이는 김경수(55)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다. 김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공사의 입찰 참여업체 간 담합 정황을 포착해 업체에 2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99억 상당의 예산을 절감해 녹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

김 감사는 "무엇보다 아버지(86세)이 수상 소식에 기뻐하셨다"며 웃었다. 건축 관련 일을 해오던 김 감사는 2008년 2년 계약인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에 채용된 뒤 계약을 한 번 경신해 오는 6월 말까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서울시에서는 시정의 신뢰도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옴부즈만을 전국 처음으로 창안하여 1996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감사 옴부즈만이라는 게 쉽게 보람을 느끼기에는 어려운 일인 듯합니다. 매번 하는 일이 지적하거나 잘못을 캐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전임자가 시작한 잘못을 후임자가 책임지고 문책당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고뇌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지적된 점들이 제도개선에 반영되는 것을 바라볼 때는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고 그는 말했다. 김 감사는 "예전에는 건설과 관련해 '서울시 복마전'이란 소문이 돌 정도였지만 시민감사 옴부즈만 제도 도입 이후 그러한 말이 사라져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올 6월 임기가 만료되면 민간인으로 돌아간다.

"감사도 오래하면 타성이 붙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기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직 임기 만료 이후 계획은 없지만 본업인 건설현장으로 돌아가야지요."

대통령표창 오금환 경주 천북초 교사

청렴통장·청렴놀이 개발... 청렴교육에 기여
부패방지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경주 천북초등학교 오금환(46) 교사는 수상자 가운데 유일한 교사였다.



옴부즈만 부문 녹조근정훈장 김경수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오금환 부패방지 부문 대통령표창 김재명 민원업무 부문 근정포장 신현삼 옴부즈만 단체부문 대통령표창 부천시 민원업무 단체부문 대통령표창 병무청

오 교사는 ‘Clean hands-heart’ 실천운동을 통해 학생들이 어릴 적부터 청렴한 생활습관을 기르고 이를 내면화할 수 있도록 힘써오고 있으며, 2011년 천북초가 전국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회에서 전국최우수 학교상을 수상하는 데 기여하는 등 공로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2011년도 전국 청렴교육 연구학교 운영성과 발표회에서는 초등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청렴통장’과 ‘청렴놀이’라는 유용한 자료를 개발해 전국 최우수 학교상을 수상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오 교사는 “‘청렴통장’은 착한 일을 했을 때 도장을 찍어 포인트로 적립하고, 이를 학교장터에서 학용품이나 다른 물품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에게 청렴활동을 장려하는 제도이며, ‘청렴놀이’는 보물찾기처럼 종이에 배려, 욕심 같은 글귀를 써서 숨긴 뒤 찾는 놀이”라고 설명했다.

오 교사는 “어릴 때부터 청렴함을 내면화해야 건전한 시민의식을 갖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이들에게 청렴이란 단어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행동하기는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자기 일에 책임지는 마음, 욕심을 버리는 절제하

는 마음, 차별하지 않는 마음 등이 바로 청렴한 생활습관의 시작입니다.”

대통령표창 임명의 제보자

구제역 보상금 허위 청구 육가공업체 고발

이날 시상식에는 ‘얼굴 없는 수상자’가 있었다.

부패방지 부문에서 구제역으로 살처분한 돼지두수를 약 7,000 이상 부풀려 지자체로부터 20억원의 허위 보상금을 받아낸 육가공업체를 신고한 임명의 부패신고자는 부패방지 부문에서 대통령표창의 영예를 누렸다.

부패방지 부문에서는 또 창호 납품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국립대와 교육청 등의 공무원 34명을 검거한 경찰청의 김재명 경위가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민원부문 개인 수상자 가운데에는 병무청의 신현삼(57) 서기관이 근정포장을 받았다.

신 서기관은 2011년 중앙부처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서 1위 달성에 기여한 민원총괄과장으로서, 홈페이지 민원신청채널 국민신문고 통합 및 신문고 데이트 VOC통합 관리시스템 자료 연계 등을 통해 대국민 민원서비스를 강화했다.

또 상근예비역소집 통지자 피부양자 범위 규정 마련,

언어소통의 장애가 있는 영주권 포기자 군적응 교육기회 부여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부천시 옴부즈만 단체부문 대통령표창

“지자체 최초 옴부즈만 시행이 결실 맺어”

단체상에는 ▲민원창구를 통합 운영하여 민원인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현안갈등 해소를 위한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한 경기도 부천시(옴부즈만 부문) ▲2011년 민원처리 실태평가에서 1위를 차지한 병무청(민원업무 부문) ▲부정부패신고를 위한 핫라인 개설, 청탁등록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매우 우수’를 받은 통계청(부패방지 부문)이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했다.

옴부즈만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부천시의 김만수 시장은 이날 시상식에 참석해 “1997년 지자체 최초로 옴부즈만을 시행한 결실을 보는 것 같아 정말 기쁘다”며 “애니메이션으로 유명한 부천으로 놀러오시라”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권익의 날 선포식이 끝난 후 초·중고 학생들이 구성된 합창단이 축하를 부르고 있다.

부천시는 지자체 최초로 1997년 옴부즈만을 시행한 후 현재 옴부즈만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매년 운영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여 다른 지자체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다.

민원업무 단체부문 대통령상을 수상한 병무청의 김영후 청장은 “과거 병무청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이 있었는데, 군인들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되어 기쁘다”고 하면서 “이것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생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2월 27일은 ‘국민권익의 날’

“국민소통 원활하고 부패 없는 대한민국 기원”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한 수상자들 덕분에 국민권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권익위는 올 한 해도 ‘사회적 약자의 도우미’로서 국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시상식에 앞서 김 위원장은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선언하는 선포식을 갖고, “사회 전반에 올바른 권익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정착시키고, 선조들의 지혜로운 위민정신을 올바른 권익문화로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선포 소감을 밝혔다.

2월 27일은 조선 태종이 백성과 소통하기 위해 신문고를 설치하라는 교서를 발표한 날이다. 중국의 제도를 본떠 도입한 신문고 제도는 개인적 상소사건·사회적 청원사건·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종합적인 ‘소통의 제도’였다.

선언문 발표 후 김 위원장과 ‘청렴 대한민국의 미래’를 상징하는 어린이가 신문고를 함께 치는 행사를 갖고 신문고에 담긴 소통정신을 계승하는 의지를 다졌다. 신문고 북소리와 함께 국민권익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가 널리 확산되기를, 국민소통이 원활하고 억울하거나 부패한 곳이 없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해본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정부패는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른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려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오늘날과 같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때 부정부패가 초래할 악영향은 더욱 클 것이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1년도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현재 심각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이탈리아가 69위, 그리스가 80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으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 윤리법', 형법상의 뇌물죄 등이 있다. 그러나 이들 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올해 안에 입법하려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반대의 빌미를 줄여야 한다. 다음으로 이 법안을 이슈화하는 사회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종래의 부정부패방지대책이 처벌위주로 되어 있는 점에 비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부정부패의 본질을 바로 보고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 있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입법되는 데에는 난관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 법안의 입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부정청탁 방지법’에 국민적 관심을

패방지관련법은 부패에 대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포함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도 대가성 없는 금품수수 등 뇌물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위층의 스폰서가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만일에 대비하여 평소에 공직자에게 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장기보험'의 하나로 인식하고 이를 실행하는 풍조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연구주의가 강한 가운데 공직자에 대한 청탁은 보편화되어 가고 있다. 청탁이 보편화되다 보니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하여 또는 경쟁상대방이 청탁을 하는데 나만 가만히 있으면 손해를 볼 것 같아 청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한 번만 청탁하면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여러 루트를 통해 청탁자를 최대한 동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다.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이 법안의 입법에는 은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 근본적 이유는 부패방지입법이 강화될수록 권력자와 유력자의 사익추구가 제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법안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 입법취지를 살린 채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안이 부패에 대한 처벌보다는 부패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하고,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안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반대의 빌미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단체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사회단체와 국민은 권력자에 대해 국민이 우위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인 선거에서 이 법안을 이슈화하고, 정당,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에게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물어 법안통과에 대한 약속을 미리 받아두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일러스트: 이철원



공 / 감 / 누 / 리

포커스 '부정청탁 방지법' 2차 토론회

우리 이렇게 일해요 - 권익제도기획관 보완해야 할 행정제도 찾아내 개선 권고

국민권익이 만난 사람 '110 국민콜' 홍보대사 이선영 아나운서

글로벌 권익위 이동신문고 세계를 향해 '활짝' G20국가들과 부패방지 국제공조 확대

“부패문제의 근원에 알선·청탁관행 있다”

‘부정청탁 방지법’ 2차 토론회… 연내 입법 계획

공직자는 청렴함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공직자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국민은 공직자에 대해 적지않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 인사들의 의견을 들었다. 글·손수원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지난해 실시한 국제투명성기구(TI)의 국가청렴도(CPI)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는 10점 만점에 5.4점을 받아 조사대상 183개국 중 43위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도 39위에 비하면 4단계나 하락한 것이다. 그만큼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21일 서울상공회의소에서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공개토론회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부패유발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해나가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토론의 자리였다.

국민 87% “알선·청탁행위는 부패”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해양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부처 관계자와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태범 방통대 행정학 교수, 부정복 TY&Partners 변호사, 김남기 조선일보 논설위원 등 학계·재계·언론·시민단체 인사들이 다양하게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영란 권익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문제의 근원에는 연고관계 또는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공직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알선·청탁 관행이 자리 잡고 있다”며



2월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부패유발 요인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 논의가 펼쳐졌다.



토론회에서 박계옥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은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은 물론,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그릇된 행동 양식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부정청탁의 수수 금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오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을 금지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관리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2011년 8월 국민권익위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4.9%가 공직사회의 알선·청탁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의 87%와 공무원의 90%가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알선·청탁행위는 부패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금품 등 수수 금지’ 대상에 가족도 포함

이에 부정청탁의 개념을 확실히 하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신고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부정청탁을 한 자뿐만 아니라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도 대응 행위별로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는 직무관련자로부터 부정한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 대상에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모두 포함된다.

금지된 금품 등을 받았을 때는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소속기관장 등에 신고하고 인도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수한 공직자 및 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품 외에 사례금이나 기부금 수수에 관한 내용도 포함

할 예정이다.

세 번째는 ‘공직활동에서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이다.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사적 이해관계가 공정하고 공평한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공직자가 공직을 수행할 때 상대방이 가족·친척 등인 경우 해당 업무에서 반드시 배제되도록 제척사유를 법안에 명확하게 규정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공직자의 소속기관과 가족 간의 수익계약과 특별채용을 금지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나 계약체결을 금지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도 ‘이해충돌’과 관련, 외부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와 관련된 사업자 등과의 거래 제한, 소속기관 등에 가족 채용 제한 등의 내용도 포함되었다.

온라인 토론회 등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

이어 벌어진 토론에서는 토론자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냈다. 김남기 조선일보 논설위원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직무권한 범위 내의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받을 때는 형사처벌을 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할 장치를 갖춘 점은 높이 평가하지만, 실제 집행과정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더 세밀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균성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예방과 사후 처벌의 균형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을 원칙적인 예방법으로 규정하고 형사처벌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송준호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총선과 대선에 있는 2012년이야말로 부패문제를 해결할 절호의 기회”라며 법안 제정을 지지했다. 반면 유국렬 식품의약품안전청 감사담당관은 “기존 형사처벌 규정의 개정을 시도한 뒤 차선책으로 신법 제정을 고려하는 게 적절하다”며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한편 권익위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와 SNS를 활용한 온라인 토론회 등을 통해 대국민 의견 수렴후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안)’을 3월 중에 마련하고 올해 안에 입법할 계획이다.



보완해야 할 행정제도 찾아내 개선 권고

부패방지·고충예방에 무게중심… ‘제도의 틈’ 악용방지 역할

권익제도기획관은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내 이에 대한 개선을 관계 기관에 권고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한다. 크게 부패방지과 고충예방에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으며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 등 3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다. 통합 이후 성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글·변형주 기자

국제학교 등 비인가학교 병역면제 악용 사례

중학교 중퇴자도 병역의무 부담토록 개선

A씨는 같은 학교 박사과정에 다니고 있는 동기인 B씨를 볼 때마다 억울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자신은 늦은 나이에 입대를 앞두고 있지만 B씨는 병역을 면제받았다. 문제는 B씨의 병역면제 사유였다. 어이없게도 ‘학력미달’이 이유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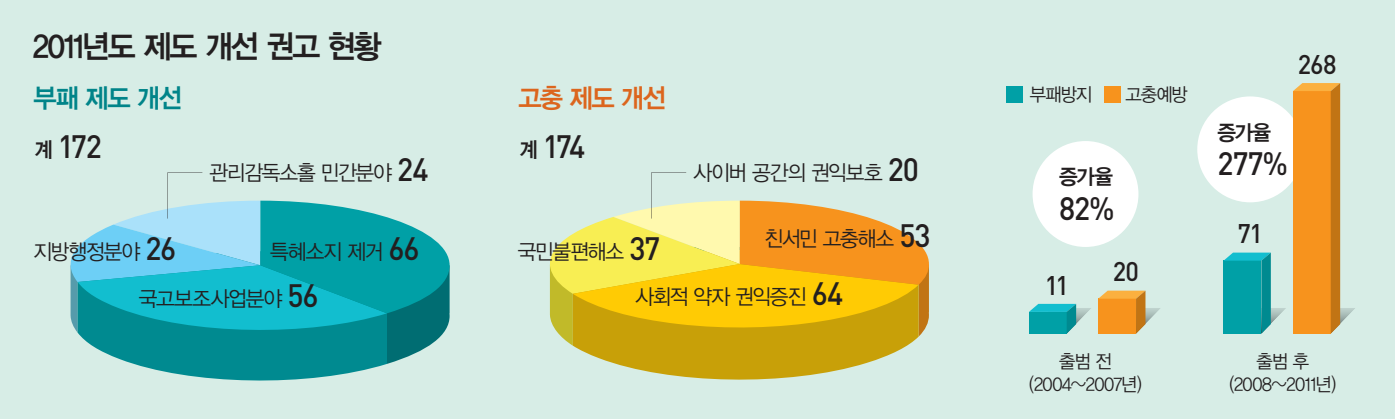
사연은 이랬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 징병검사 당시 B씨는 법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다. 교육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이다. 병역면제 후 B씨는 검정고시를 통해 고졸 학력을 인정받고 대학에 진학했다.

B씨와 같은 사례는 사회적 형평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유사 사례가 얼마든지 나타날 소지가 컸다. 국제학교와 대안학교 등 비인가 학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당 제도를 병역면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심심찮게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권익제도기획관은 제도개선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의견을 청취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은 물론 공청회 등을 거쳐 제도 개선안을 다듬는다. 사진은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영유아 보육환경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 모습.



이에 따라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병무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병무청은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중학교 중퇴자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병역 의무를 부담하도록 했다.

제도개선 권고 이행률 83.6%에 달해

어떤 국가와 사회의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 제도의 미세한 틈을 악용하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게 마련이다. 부패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로 인해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은 제도 개선을 주임무로 한다. 보완해야 할 제도를 찾아내 이에 대한 개선을 관련 기관에 권고한다. 모든 행정제도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부패방지와 고충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익제도기획관은 3개의 담당관으로 구성돼 있다. 제도개선총괄담당관, 경제제도개선담당관, 사회제도개선담당관이 그것이다. 제도개선총괄담당관은 기획 등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하고 경제와 사회 등 분야에 따라 경제제도개선담당관과 사회제도개선담당관이 실질적인 개선 업무를 추진한다.

제도 개선 과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체적으로 선정한다.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을 통해 전달되는 국민의 소리를 취합하기도 하고 언론보도와 감사원 평가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과제를 정한 후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해 관계기관에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의 권고는 사실 법적 강제성이 없다. 기관의 사정에 따라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수용되고 있다. 지난 4년간 이행률은 83.6%에 이른다.

오정택 제도개선총괄담당관 서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옴부즈만 기관이어서 제도를 직접 개선하지는 못한다”며 “권고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재차 권고를 하거나 국무회의·차관회의 보고, 국회·지방의회 제안, 언론 공표 등을 통해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 이후 내부협업 강화로 제도개선 큰 성과

제도 개선 성과는 2008년 통합 이후 크게 신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제도 개선 권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통합 이전인 2004~2007년의 연평균 부패방지와 고충예방 제도 개선 권고는 각각 11건과 20건이었다. 이에 비해 통합 이후인 2008~2011년에는 부패방지가 20건, 고충예방이 268건으로 각각 82%, 277% 상승했다.

오 서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합해 새롭게 출범했다”며 “출범 이후 국민신문고와 110콜센터 등 다양한 국민의 소리를 제도 개선 과제에 활용할 수 있게 된 데다 관계기관과 협조가 보다 원활해졌고 내부 협업이 강화돼 성과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매년 중점 역점과제를 수립한다. 올해 추진과제는 ‘부패 유발요인 제거’,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 ‘생활밀착형 제도 개선’으로 정했다.

‘110 국민콜’ 홍보대사 이선영 아나운서

“공공 민원
생기면 주저 말고
전화 주세요”



“110 국민콜을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이선영 KBS 아나운서는 8년차 아나운서로

완숙의 경지에 이른 화려한 말솜씨를 자랑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10 국민콜 홍보대사로 활약 중인

이 아나운서를 봄기운이 완연한 지난 3월 9일 만났다.

글·이정현 기자/사진·조준우 기자

“질문을 하면 꼭 부러지게 대답할 것 같은 아나운서라며 홍보대사를 부탁하셨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아침마당, 가족이 부른다’ 등을 진행하며 전 연령대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KBS 이선영 아나운서는 바쁜 스케줄 탓인지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정부대표민원전화서비스를 ‘110 국민콜’로 새롭게 명명하고 일일 생활정보 프로그램과 주말 가족 프로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이선영 아나운서에게 홍보대사직을 부탁했다.

“시청자들이 제 이미지를 편안하고 자상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주부들이 많이 보는 생활정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 지원 방송까지 진행해서 그런지 어린

학생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좋게 봐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이미지가 ‘110 국민콜’과 잘 맞다고 생각하셨는지 권익위에서 홍보대사를 맡아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 아나운서는 지난해부터 ‘110 국민콜’ 홍보대사로 적극 활동하고 있다.

‘110 국민콜’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0번만 누르면 317개 정부 및 공공기관의 모든 민원업무를 상담·안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전화뿐 아니라 110홈페이지(www.110.go.kr)나 스마트폰 110(m.110.go.kr)에서도 예약·문자 상담이 가능해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들을 위해 영어, 일어, 베트남어 등 20여 개 외국어 상담서비스도 운영 중이에요.”

‘국민콜’이라는 서비스명은 마음에 드십니까.

“원래 ‘정부대표민원전화 110’이었는데 명칭이 너무 길고 인지도가 낮아서 ‘110 국민콜’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명칭을 바꾸는 과정에서 스마트폰, 화통한콜, 유니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국민’ 하면 그 의미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시골 할머니에게 ‘스마트폰 이용하세요’ 하는 것보다 ‘국민콜 이용하세요’라고 하면 쉽게 서비스 내용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언어·청각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에 대해 알려주세요.

“110 콜센터에서는 언어·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씨토크’ 영상전화기를 이용한 수화상담과 모바일 문자상담을 이전부터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상전화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에서도 수화상담을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한 화상(수화)상담과 채팅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와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요즈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SNS 상담서비스는 없나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이용하실 수 있어요. 페이스북(110call)에 방문해 글을 남기거나 트위터(@110callcenter)에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면 상담사분들이 실시간으로 답변해주세요.”



이선영 아나운서는 “국민콜을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나운서들이 홍보대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과 병행하기 힘들지는 않나요?

“저의 경우는 보훈공단 홍보대사를 했어요. 어르신들이 요양하는 곳에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듣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동료 아나운서들 역시 연금공단, 어린이재단 등 공익 단체의 홍보대사를 맡는 경우가 많아요. 직장 생활을 통해 자신의 꿈과 비전을 실현하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재능을 기부해 사회공헌도 함께 할 수 있다면 일석이조가 아닐까요.”

올해 정부대표민원전화 개시 5주년인데 축하인사를 부탁드립니다.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행정민원뿐만 아니라 세금 문제까지 다양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110 국민콜’을 많은 분들이 이용했으면 좋겠어요. 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국민콜을 통해 신속하게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110 국민콜’ 서비스가 국민 여러분들께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 아쉬워요. 제가 지난해에 이어서 2년째 홍보대사를 맡고 있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국민콜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동신문고 서비스를 통해 '활작' 외국인 근로자들 처우개선 나섰다

가리봉동서 '맞춤형 이동신문고' 열어 ... 외국인 근로자들 불편과 고충 해결

외국인도 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가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직접 찾아갔다. 외국인 이동신문고는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체류 중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을 해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의 현장 고충민원 상담제도인 '이동신문고'가 외국인들을 찾아갔다. 지난 3월 1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소재 한국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상담을 실시하는 '외국인 이동신문고'가 열린 것.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민원현장을 직접 찾

아가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국민소통 창구다.

이번 이동신문고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장을 찾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일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열렸다. 상담장소는 중국, 몽골,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 외국인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한 '외국인 이동신문고'가 3월 11일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한국외국인복지지원센터에서 열렸다.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 한국외국인복지지원센터로 선정됐다.

상담반은 복지·노동·출입국·생활 법률 등 4개의 외국인근로자 고충다발 분야의 전문조사관·변호사로 구성하고, 베트남·중국·인도네시아·태국·몽골 등 8개 언어 통역원이 상담을 지원했다.

그동안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 체류 중 발생하는 불편과 고충에 대한 해결책을 얻음과 동시에 필요 시 권익위와 관계기관의 협의로 해결책을 사후 통보하기로 하는 등 이번 이동신문고에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체감하는 실생활에서부터 근로 여건에 관한 사항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담한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사안은 바로 해결했으며, 조사가 더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다.

약 200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참여한 이번 이동신문고는 그동안의 한국 체류관계와 임금체불에 관련한 고충이 주를 이뤘다. 특히 출입국 관련 사항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임이 드러나 향후 귀화 관련한 법무부 출입국 관련 매뉴얼 부재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8개 언어로 복지 등 4개 분야 상담 지원

중국 교포(조선족) 김종일씨는 “한국에 들어온 지 1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국적 취득이나 재입국이 요원하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한 국적 취득 논의를 접할 때마다 오랜 기간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조선족들은 자괴감이 크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모든 의견을 숙지한 권익위 이충호 고충민원심의관은 “외국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의 밑바탕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권익위 또한 이들 외국 근로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 다각도로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외국인 근로자 상담과 함께 관계자들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는데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들이 상당 부분 사각지대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김원경 상담팀장은 “현재 한국에는 상당수의 무국적자가 있는데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만큼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방법을 강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국적 근로자들의 번호를 맡고 있는 김종수 변호사는 “외국인들의 출입국 소송 진행 시 체류기간이 3개월 정도 허용되기는 하나 1심 판결이 집행유예가 될 때 내국인은 석방되는 것에 비해 이들은 구치소와 다를 바 없는 보호소로 이동해 강제 출국되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권익위가 법무부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외부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권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외국인 대상 정책 사각지대 의외로 많아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 중소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새로이 도입하여 총 106건의 민원·건의사항을 처리했다.

개별적인 민원상담 외에도 각국 외국인 근로자, 지원단체, 유관기관 관계자들의 건의 사항을 수렴해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가 있으면 개선을 권고해 외국인 관련 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중국·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4개 국어 브로셔 3월 초 발간



국민권익위원회는 3월 초 위원회 소개 브로셔를 4개 국어로 발간했다. 기존 영문 브로셔에 이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베트남어 브로셔가 추가된 것이다. 위원회는 매년 위원회를 찾는 해외기관이 20여 곳이 넘으며, 위원회를 방문하는 해외 관계자들이 자국어 브로셔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위원회 방문 횟수가 많은 국가를 중심으로 브로셔를 발간한 것이다. 브로셔는 위원회를 방문하는 외국 기관 관계자들에게 배포하는 한편 위원회 직원들이 해외출장 시 해외기관을 방문할 때 소개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브로셔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한 제도와 성과 등의 내용도 실려 있다.

G20국가들과 부패방지 국제공조 확대

권익위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에 한국 수석대표로 참석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를 위해 세계 선진국들의 부패방지 관련 기구들과 논의를 가졌다.

권익위는 지난 2월 28~29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에 참석해 G20 국가들의 부패방지기구 관계자들과 반부패 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반부패 정책을 알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실무그룹의 한국 수석대표를 맡고 있다.

특히 권익위는 그동안 반부패 실무그룹 논의에서 회원국들의 반부패 역량배양 지원의 중요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

G20 국가들이 반부패 정책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피츠버그 회의 때다. 피츠버그 회의에서는 부패 문제가 경제위기 및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공동 인식하에 G20 차원에서 반부패 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어 2010년 6월 토론토 회의에서는 각국 정상들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반부패 정책 권고안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입국금지, 재산등록, 정부조달 등 중점 논의

그 결과 '반부패 실무그룹'이 설치됐으며,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마련해 2011년 서울 회의에서 정상선언문에 채택됐다. 서울 정상선언문에서 G20 국가는 부패를 방지하고 척결해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했으며,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통해 선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번 런던 회의에서는 입국금지, 재산등록, 정부조달, 시민사회 참여 등에 관한 이슈들이 주요 의제로 논의되었는데, 특히 입국금지 및 재산등록에 관한 원칙 채택에 관한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또한 이번 회의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민간과 공공부문을 포괄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정과 이



G20 정상은 2010년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각국 실무진이 참여하는 반부패 실무그룹을 만들고 매년 실무회의를 갖는 데 합의했다.

행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이 행동계획에는 UN반부패협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 등 주요 반부패 국제협약에 대한 회원국들의 가입 및 비준을 촉구하는 내용을 비롯해, 부패 공무원의 금융시스템 이용 방지, 부패 공무원의 입국 및 피난처 제공 금지, 은닉자산 회복 지원 등 각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회의에서는 구체적인 반부패 조치들에 합의함으로써 회원국들이 부패척결을 위해 모범적으로 행동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명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부패는 더 이상 일국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공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G20 회원국들은 향후 반부패 행동계획 채택이 단순한 공약이 아닌 실효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진전사항을 매년 정상들에게 보고하기로 했다. 2011년 칸 정상회의에 제출된 'G20 반부패 행동계획 이행 보고서'에는 한국 측 이행 성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 최유진 사무관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을 토대로 향후 구체적인 반부패 전략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글·권세진 기자



일러스트·이철원

소 / 통 / 누 / 리

국민권익위가 갑니다 강원내륙에 권익위가 뒀다

광주 조정화의 현장 지자체·공기업 한 발씩 양보한 '공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옹벽 등 주민 민원 3건 해결

블로그 기자단 "민감한 기사도 '컷'없이 격려해줘 감사"

강원내륙에 권익위가 났다

‘찾아가는 민원해결사’ 홍천·양구·화천 현장방문



국민권익위원회가 현장에서 국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출동하는 ‘이동신문고’가 지난 2월 22~24일 강원도 홍천·양구·화천에서 열렸다.

이동신문고는 전문조사관·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이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합동으로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억울함을 해결해주는 지역방문 민원상담·처리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에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의미가 더했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김영란 위원장이 홍천중·고 앞에 모인 민원인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홍천군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서 조사관들이 민원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있다.

2월 22일 홍천군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은 아침부터 소식을 듣고 찾아온 지역주민들로 분주했다. 오전 11시경 민원신청인이 이미 70명을 넘어섰고, 조사관들은 점심식사를 할 새도 없이 민원 청취에 바빴다. 지난 1월 충주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서 1일 민원접수인이 60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이동신문고가 널리 알려지고 있으며 이를 찾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홍천군청에 오전에만 70명 넘어서

조사관들은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행정 전문가들. 보다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공익법무관들이 담당한다.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특히 군청과 연계된 민원의 경우 조사관들이 즉시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민원인과 공무원을 연결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대부분 지역주민이 농업 및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어 토지 소유권 및 사용목적에 대한 민원이 많은 편이었다. 홍천읍에 거주하는 유창열씨는 “임야 1,000㎡가 모두 공

익용 산지로 지정돼 있어 일하는 데 꼭 필요함에도 사용할 수 없고 멀리 떨어진 곳에 시설을 따로 마련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축산물처리장 시설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동면 신봉리 이장 고병목씨도 “관내 자연녹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많은데,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가려면 논고 있는 땅에 농사라도 지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녹지보호구역을 일부라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두촌면 원동2리 이문환씨는 농촌 지역 노선버스 증차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버스를 타러 가는 데만 1시간이 걸립니다. 그나마 버스가 오전 7시, 저녁 7시 하루 두 번밖에 오지 않아요. 낮에도 최소한 1대는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북방면에 조성 중인 무릉도원 관광단지에 대한 민원인도 여러 명 있었다. 이 동네 주민 권혁재씨는 “관광지에 무릉도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언뜻 종합관광단지로 보이지만 사실상 골프장이예요. 주민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고, 공사가 수 년째 지연되면서 비산먼지와 토사유출, 오수로 인한 수질오염 등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며 “군청과 도청 등에 수차례 민원을 넣었지만 해결될 기미가 없어 이동신문고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22일 홍천군청 강당에서 이동신문고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오후 2시 강원도홍천교육지원청에서는 권익위가 주최하는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현장 소통 간담회’가 열렸다.

학교폭력·과밀학급 등 교육현장 민원도 접수

학교폭력 문제가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란 위원장 외에 조현수 청와대 국민권익비서관, 허필홍 홍천군수, 이인상 홍천경찰서장 등이 참석했으며 홍천군내 초·중·고등학생 대표와 학부모 대표, 교사 대표들이 함께했다.



양주군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에 참석한 주민들이 조사관의 설명을 듣고 있다.

김영란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민들의 고충을 현장에서 듣기 위해 이동신문고가 강원도에 왔다”며 “이와 함께 교과부가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는 가운데 국민고충 청취의 일환으로 권익위가 학교 현장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학생들이 폭력 행위가 잘못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학생을 무조건 처벌할 것이 아니라 잘못을 스스로 느끼도록 하고 시간을 들여 선도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들을 내놓았다. 홍천여고 허미란 학생회장은 “학생들이 이른바 ‘일진’을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의식을 뿌리부터 변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학부모들은 “가정에서도 잘 지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학교와 지역사회가 아이들을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청 전문상담교사 김혜령씨는 “선진국의 경우 학교마다 상담교사가 많은데 우리나라는 크게 부족하다”며 “아이들의 고충을 들어줄 수 있는 상담교사를 확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한 뒤 “법관 시절 학교폭력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많이 담당했었는데, 가해자들이 한참 후에 ‘당시엔 그토록 문제가 심각한 줄 몰랐다’며 편지를 보내오곤 한다”며 “학생들의 인식변화가 시급하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가해자를 선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문제

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과 권익위 및 홍천군 관계자들은 간담회에 이어 지나친 과밀로 분리·이전이 필요한 홍천중·고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홍천중·고 관계자는 “공간이 비좁은 것은 물론 점심시간에 학생들이 3교대로 급식을 해야 할 정도로 공간과 시설이 부족하다”며 홍천중과 홍천고의 분리 및 이전을 주장했다.

홍천군은 ‘김영란 위원장님 사랑합니다’라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 학교 앞에 걸어 김영란 위원장을 맞았고, 학부모 수십 명은 ‘홍천중·고를 분리 이전해달라’는 피켓을 들고 김 위원장을 환영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폭력과 과밀학급 등 학교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위원장, 양구서 직접 군민 민원 청취

다음날인 23일 양구군청에서 열린 이동신문고 현장에는 김영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군민들의 민원을 들었다. 또 김 위원장은 양구지역 사회 단체 및 다문화가족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통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근로자 양성화 방안’ 등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주민들의 이전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태풍사격장을 방문했다. 권익위·양구군·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전창범 양구군수는 “단기적으로 군부대에서 주민불편 해소와 피해보상 대책에 노력해주길 바라며, 장기적으로는 이전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이동근씨는 “사격장으로 인해 주민들은 반세기 넘게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고,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의 고통은 물론 학생들의 학업에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포 사격으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와 보상 규모 산정의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지자체와 군부대가 협조해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고현수 2사단장은 “군 본연의 임무로 인해 사격장 운영은 불가피하지만 군이 조금 불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주민 편의를 가장 우선에 두고 훈련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해안면사무소를 방문해 주민들의 개간토지 불하요구 민원을 청취하고 해안면 현장을 확인했다.

이동신문고는 올해 1월 충북지역과 2월 강원 내륙권을 찾은 데 이어 3월 경기, 4월 경남, 5월 광주·전남, 6월 대구·경북, 7월 충북·전북, 9월 강원(동해권), 10월 전북, 11월 충남, 12월 부산·경남 등 한 해 동안 36개 지자체를 방문한다는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전국 46개 시·군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해 총 1,238건의 민원을 상담 처리했고, 그중 244건을 현장에서 합의해결했다.

또 권익위는 각 지역을 방문할 때 이동신문고에서 그치지 않고 주민들과 소통간담회를 주최해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고충을 경청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동신문고와 소통 간담회는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운영의 주요한 축이 될 전망이다.



김영란 위원장이 2월 23일 강원도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군민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2월 17일 광주 광산구 민원 현장을 방문한 박재영 권익위 부위원장이 철도차량기지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지자체·공기업 한 발씩 양보한 '공생'

광주 광산구 장수동 2차선 도로 85m의 6차선 확장에 모두 동의

국민권익위 '현장조정'은 당사자 간 토론과 협상을 통해 갈등을 해결할 수 없을 때, 대안적 분쟁해결 역할을 하는 행정절차다.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위원 등 간부가 직접 관계기관과 민원인을 모두 참석시킨 가운데 회의를 연다. 이 자리에서 합의한 '조정안'은 민법상 '화해'와 같은 역할을 한다.

지난 2월 17일 광주광역시에서는 광산구 장수동 2차선 도로 85m 구간에 대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조정회의가 열렸다. 글·박희석 기자/사진·서경리 기자

지난 2월 17일 오후 1시 광주광역시 호남고속철도 차량기지 상황실, 국민권익위 박재영 부위원장이 "현장조정회의를 시작한다"며 개회를 선언했다.

광주 현장조정회의 안건은 "철도차량기지 지하차도(6차선) 공사와 하남 산단 외곽도로(4차선) 장수교차로 사이의 2차선 도시계획도로를 공사구간에 포함해 6차선으로 확장해달라"는 민원이었다. 민원 제기 구간은 광산구 장수동 대로 1-19호선 중 467-10~472-1번지를 포함하는 약 85m 구간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당 토지 소유주인 강옥선(54)씨 외 4명이 민원신청인, 광주광역시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영록 호남본부장이 피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장수동 대로 1-19호선은 원래 2차선으로 개설된 도로였지만, 최근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2009년 KTX 호남선 차량기지 부지가 장수동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원래 예정지는 광산구 유계동이지만, 광주공항 비행안전 구역에 있어 야간조명, 고도제한 등의 제약이 있었다. 차량기지 입지는 장수동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병목구간 예상에도 힘겨루기만

철도시설공단은 차량기지 부지에서 장수교차로까지 980m를 6차선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착공에 들어갔다. 한편 광주광역시는 2005년 하남 산단 물류의 고속도로 접근성 제고와 혼잡도 개선을 위해 외곽도로 건설을 추진했다. 1,370억원을 투입해 2015년까지 총연장 5.5km

의 4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이다.

문제는 철도시설공단의 지하차도와 광주시의 외곽도로 사이에 있는 약 85m의 2차선 도로가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점이다. 계획대로라면 너비 35m의 차량기지 지하차도에서 외곽도로와의 접점인 장수교차로 진입 직전에는 폭 8m에 불과한 구간이 약 85m 형성된다는 얘기다. 더구나 이 도로는 2013년까지 차량기지 옆으로 이전하게 돼 있는 하남 산단 컨테이너 야적장의 진입로로 쓰일 계획이다. 이전보다 통행 차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교통체증은 명약관화한 것이었다.

강옥선씨를 비롯한 장수동 주민 6명은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기존 2차선 도로는 개통 후 병목현상과 교통사고 위험 등의 문제점이 예상된다"며 "잔여지를 사업구역에 포함해 6차선으로 확장해달라"고 시청과 철도시설공단에 요구했다. 하지만 양측 모두 "소관이 아니다"며 민원 처리를 꺼렸다.



박 부위원장이 조정안에 대한 피신청인인 광주광역시와 철도시설공단의 이견 여부를 묻고 있다.



민원인 강옥선씨

이병록 부시장

임영록 호남본부장



이날 조정은 박 부위원장의 '합의 성사' 선언으로 마무리됐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권익위를 찾는 현장이면 어디라도 직접 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현장조정이 끝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광주광역시청은 “민원 구간이 하남-장성·삼계 간 광역도로 중 일부인 것은 맞다”면서도 “확장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구간의 확장공사는 2009년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돼 당분간 추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또 하남 산단 외곽도로 개설 사업은 지하차도보다 선행한 사업이었습니다. 차량기지 사업 실시계획 사전협의 때 문제점을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에 건의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차량기지 입지에 따른 주변도로망에 대해 불충분한 개선대책을 세운 철도시설공단에서 확장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철도시설공단도 “해당 구간은 철도차량기지 사업구역 밖에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권자로서 도로개설 의무가 있는 광주광역시가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모르쇠'에 속이 타는 건 강씨를 비롯한 주민들이었다. 하소연할 곳을 찾던 그들은 권익위에 지난해 10월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을 넣었다. 내용을 검토한 권익위는 주민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확장 방안을 강구했다.

박재영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떠넘기기 행태’로 추락한 자치단체 및 공기업의 대(對)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피신청기관 간 공정한 역할분담으로 도로개설사업의 미흡함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다.

조사 착수 3개월 만에 중재 성사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광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의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다. 올 1월에는 과장급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관계기관과 조정방안을 협의했다. 권익위는 공사구역에서 제외된 병목구간의 확장개설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한 다음 2월 17일 현장조정회의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박 부위원장은 합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지 당사자들에게 확인했다.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만족한 듯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이날 작성된 합의서는 병목구간에 대한 공사를 양 기관이 사업비를 추가확보해 차량기지 준공시점에 맞춰 시

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시설공단은 6차선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를 장수교차로 램프 지점까지 연장해 도로를 확장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철도시설공단이 확장하는 도로의 경계지점부터 하남 산단 외곽도로로 장수교차로까지의 도로를 2014년까지 완료하고,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맡기로 합의했다. 민원인의 요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는 얘기다. 권익위에 따르면 광주시가 7억원, 철도시설공단이 9억원을 부담해 중재안을 이행할 것이라고 한다.

권익위는 “이번 조정으로 2차선 병목구간이 6차선으로 넓어지면서 산업단지에서 주변 고속도로로 물류이동이 신속·원활해지고 교통사고 발생위험도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의를 주재한 박 부위원장은 “오늘 조정은 오랜 기간 소관이 불분명했던 문제를 서로 협력해 해결한 것으로 노력과 양보를 통한 소통의 결과”라면서 “도시계획도로 병목구간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다는 점이 무엇보다 뜻깊었다”고 평했다. 또 “KTX 호남선 개통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양 기

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도 “병목구간은 향후 시(市)가 확장해야 하는 노선이었는데, 철도시설공단에서 사업비를 투자하기로 한 것은 시 입장에서 재정투자를 최소화하면서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 결과를 가져온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권익위는 광주시와 철도시설공단의 조정안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권익위는 관계기관에 서류 제출, 직원 출석 및 진술 등의 조치를 해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관계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익위의 요청에 응해야 한다.

“현장에 답이 있다”... 올 30회로 확대

권익위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민원은 100여 건이다. 대표적인 민원 사례로는 속초비행장 고도 완화를 통해 인근 주민 300여 명의 주택과 농가 창고를 건축할 수 있게 만든 것과 1971년부터 설치돼 있던 강릉 사천해변의 군 경계용 철책을 철거해 관광객이 해변을 자유롭게 출입하게 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 일을 꼽을 수 있다. 권익위는 현장조정을 올해 30회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박 부위원장은 “권익위를 요구하는 현장은 어디라도 직접 찾아가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사실 권익위가 할 일이 없어져야 좋은 사회가 되는 데, 민원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욕구가 갈수록 다양해지니까요. 그런데 일선기관에 가면 스스로 ‘갑(甲)’이라고 여기며 목에 힘주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능동적 사고와 적극적 자세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오늘 민원처럼 간단한 문제도 장기간 방치되지 않았습니까. 국민권익위는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바로 현장에 답이 있다)’ 신조로 현장의 목소리를 중시하고, 그 목소리가 정부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울산 혁신도시 옹벽 등 주민 민원 3건 해결

표준지 공시지가도 행정심판 청구 가능토록 재결례

어려움을 겪는 국민 곁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고충민원 처리가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 위기에 놓였던 원곡물류단지가 권익위 중재로 고비를 넘겼으며, 실제가격보다 높은 공시지가에 대해 행정심판으로 수정이 가능해졌고, 울산 혁신도시 경계선에 답답한 옹벽이 들어서는 대신 녹지가 들어서게 됐다. 글 박경아 기자



녹지 조성·연결도로 개설·오수 배출구 복개 결정

울산 혁신도시를 건립하며 경계선에 세워질 예정이던 120m 길이의 거대한 옹벽이 권익위의 중재로 마을 주민들의 조망권과 통행권을 보장할 수 있는 완만한 녹지로 변경된다. 또 우교천에서 나는 악취를 막기 위해 도로개설 구간의 오수 배출구도 복개된다

권익위는 3월 14일 울산시 중구 울산혁신도시 사업단 회의실에서 중구 우정동과 교동 마을 주민의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등 주민피해 대책요구' 집단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정회의 결과 이 같은 민원 해결을 이뤄냈다.

권익위의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는 우정동 주민대표 오예숙씨, 교동 주민대표 이옥순씨와 한국토지주택(LH) 공사의 신흥기 부산울산지역 본부장, 울산광역시 박성민 중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LH공사는 2007년 4월부터 중구 우정동 일원에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우정동과 교동 마을의 북쪽 경계인 북부순환도로 교동교 아래쪽에 높이 15m, 길이 약 120m의 보강토 옹벽을

설치토록 계획했다. 이 일대 주민 1,100여 명은 콘크리트 옹벽이 들어서면 마을에 바람이 통하지 않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을과 혁신도시의 연결도로가 없어 고립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중구청이 유지·관리하는 교동교 아래쪽에 위치한 우교천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것도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우정동과 교동 주민들은 옹벽 설치 계획 취소와 혁신도시와 기존 마을 간 연결도로 개설, 교동교 아래쪽 우교천의 악취 해결을 권익위에 요청했다.

이에 권익위는 현장 조정회의에서 ▲LH는 옹벽 대신 완만한 녹지로 경사면을 조성하고 ▲LH와 울산 중구는 마을과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며 ▲중구는 악취 발생을 막기 위해 도로개설 구간에 있는 오수 배출구를 복개한다는 내용을 조정, 결정했다.

안성 원곡물류단지사업 공사재개 '숨통'

중중과의 갈등으로 자칫 중단될 뻔했던 안성 원곡물류단지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권익위는 3월 13일 오후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물류단지

현장사업소에서 경기도시공사 사장, 안성시 부시장, 경주이씨 평리성암공과 대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합의안을 마련했다.

원곡물류단지는 2008년 착공 당시 안성시가 평리성암공과 중중요역을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경기도시공사가 설계한 절토면은 중중 묘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민원이 발생했다. 안성시 원곡면 칠곡리 일원의 67만9,711㎡의 면적에 조성 중인 원곡물류단지는 2013년 12월 말 완공 예정이다.

평리성암공과 중중대표는 물류단지 부지조성 계획이 수립될 당시 안성시 측이 중중요역을 보존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경기도시공사가 설계한 절토면과 중중 묘지와 거리가 너무 가까워 간격을 넓혀주고, 묘역 후면에 옹벽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을 2012년 1월 국민권익위에 제기한 바 있다.

경기도시공사 측은 그동안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와 인허가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옹벽설치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물류단지는 분양이 이미 끝나 2012년 3월 초 공사를 못하면 입주자에 대한 계약 위반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었다.

중재에 나선 권익위 박재영 사무처장은 묘지 뒤쪽의 절토면 안



정을 위한 공사를 옹벽이 아닌 둔덕으로 조성해 나무를 심기로 했다. 또 절토면 상단부와 묘역과의 거리를 당초 18.83m에서 31.33m로 넓히도록 조정해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여러 정황 고려해 행정심판 대상 결정

A씨는 2010년 B씨로부터 국토해양부 장관이 표준지로 선정한 광주시 광산구 소재 토지를 약 20억원에 매수했다. 그런데 최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 재결을 받았다. 국토해양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나온 것이다.

행정심판위는 해당 사건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다른 법률에 특별한 불복절차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지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는 명시적 규정도 없고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절차가 다르고 담당 기관도 다르다는 점 등을 종합 고려해보면 표준지 공시지가를 다루는 문제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1~7기 활동 중인 이우영 기자

“민감한 기사도 ‘컷’ 없이 격려해줘 감사”

지난 1월 출범한 국민권익위원회 7기 블로그 기자단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반기자 15명, 웹툰기자 5명 등 20명으로 출범한 블로그 기자단은 '세상사는 풍경'과 '문화속 세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다. 국민권익과 관련된 내용 외에도 각종 시사·사회·경제·문화 관련 내용들을 자유롭게 쓰고 있어 국민권익 블로그에 독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블로그 기자단 1기 때부터 활동을 시작해 7기까지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우영 기사를 지난 2월 2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회 국민신문고대상 현장에서 만났다.



이우영기자 drama7203@naver.com
<http://blog.naver.com/drama7203>

블로그 기자단을 지원하게 된 계기는.

“잡지사에서 프리랜서 기자 생활을 했었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접었었는데, 글 쓰는 일은 계속하고 싶었고 글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일을 생각하던 중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기자단 모집공고를 봤지요. 다른 정부기관 블로그와 달리 위원회 관련 글만 쓰는 게 아니라는 점이 매력이었어요.”

기억에 남거나 마음에 드는 기사는 무엇인가요.

“저는 시사·사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분야의 글을 쓰고 있어요. 국민권익 블로그에서 가장 높은 페이지뷰를 기록했던 기사 중 하나가 제가 쓴 '단독올림픽중계, 시청자가 뿔났다(2010.2.17)'였어요. SBS가 동계올림픽을 단독중계하겠다고 했는데 시청자들의 분노가 말도 못했죠. 그래서 그 사건을 파헤치기 위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기사를 썼어요. 독자들의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서 블로그 기자단으로서의 보람을 느꼈어요. 그외에 '세계 최강 쇼트트랙, 비리도 세계 최강?(2010.4.12)' 기사도 기억에 남아요. 독자들의 반응이 뜨겁기도 했고요. 블로그 독자들이 단순한 포스팅보다는 사회와 관련된 흥미로운 정보를 원하고 있어 이에 부응하려 합니다.”

권익위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아무래도 권익위가 정부기관이니까 시사 관련 기사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사를 쓰면 권익위 측에서 컷(cut)하지 않을까 걱정했었지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재미있는 기사를 계속 써달라고 격려까지 하시더라고요. 기자와 기사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점이 고마웠습니다.”

권익위를 주변에 간단히 소개한다면.

“아직 국민권익위가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는지 잘 모르는 국민이 많아요. 언제나 우리 곁에 있는 국민신문고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고요. 부패방지나 행정심판 등의 업무를 잘 활용하도록 더 많은 홍보가 이뤄졌으면 합니다.”

7기 블로그 기자단은 오는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글·권세진 기자 / 사진·서경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http://blog.daum.net/loveacrc/5315>



일러스트·이철원



행 / 복 / 누 / 리

- 여행 변산반도
- 시네마 토크 <달팽이의 별>
- 건강 다이어리 뇌를 쓰고, 걷자! 왔던 치매도 도망간다
- 역사속 권익 암행어사-왕의 바른 눈과 귀, 민중에겐 구원자
- 스포츠 한국 축구 뒤에는 '용감한 두 감독'
- 컬처 & 컬처 지금은 마술 시대
- 알아두세요 만 0~5세 유아 보육료 순차 전 계층 지원
- 이 한권의 책 <논어의 발견>
- 뉴스 & 피플
- 독자와의 대화

변산반도 전나무숲 거닐며 봄의 입맛을 되찾다

‘춘변산 추내장’이라고 했다.
봄은 변산이 최고이고 가을은
내장산이 가장 아름답다는 뜻이다.
내소사 전나무 숲길은 봄빛으로
물들었고 벚꽃도 만발했다.
곰소 젓갈과 백합죽 등 맛있는
봄 먹거리도 기다리고 있다.

글과 사진·최갑수 (여행작가)



전나무 숲길이 유명한 내소사. 봄에는 경내 매화와 벚꽃이 소박한 멋을 더한다.

산과 들, 바다가 어우러진 곳 부안은 천혜의 관광지다. 1990년대 초 유홍준 교수는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에서 전남 강진과 더불어 답사 첫걸음을 놓고 고민하기도 했다. 유 교수는 당시 “(부안엔) 조용하고 조출한 가운데 우리에게 무한한 평온을 안겨다주는 저 소중한 아름다움을 끝끝내 지켜온 그 고마움이 있다”고 적었다. 〈택리지〉역시 “주민들이 산에 오르면 나무를 하고 산에서 내려오면

고기잡이와 소금 굽는 일을 하며 뿔나무와 조개 따위는 사지 않아도 될 만큼 넉넉하다”고 부안을 소개하고 있다.

변산 여행의 첫걸음은 채석강이다. 채석강은 강이 아니라 변산반도 서쪽 끝 격포항과 그 오른쪽 닭이봉 일대 1.5km의 층암절벽과 바다를 총칭하는 이름이다. 화강암, 편마암을 기저층으로 약 7,000만년 전인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한 단애가 마치 수만 권의 책을 쌓아놓은 듯이 와층

을 이루고 있다.

기기묘묘한 해식 단애의 모습은 자연의 신비한 섭리를 한껏 일깨워준다.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형성된 기이한 절벽에 파도가 부딪는 소리를 들으면 자연과 하나 되는 기분을 만끽할 수 있다. 채석장이란 명칭은 옛날 중국의 시성 이태백이 배를 타고 술을 마시다가 강 위의 달그림자를 잡으려다 빠져 죽었다는 채석장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졌다.

채석장을 둘러본 다음 내소사로 간다. 30번 국도는 해변을 휘감으며 변산반도를 일주한다. 곰소항, 격포항, 채석장을 이으며 50km를 달린다. 채석장에서 내소사까지 이어지는 30번 국도의 오른쪽에는 봄바다가 옥빛으로 일렁인다.

채석장과 소박한 멋의 사찰 내소사

내소사는 백제 무왕 34년(633)에 지어진 절이다. 일주문에서 절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이 아름답다. 월정사 일주문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이 가지런히 정리된 모습이라면 이곳 숲길은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심어져 있어 더 푸근한 느낌이 난다. 600여 m에 이르는 전나무 숲길을 걸어 내소사 천왕문에 다다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정갈해진다.

내소사는 본래 이름이 '다시 태어나기 위해 찾아오는 곳'이라는 뜻의 소래사(蘇來寺)로 화려하지 않아도 고졸(古拙)한 멋이 풍기는 사찰이다. 아담한 경내이지만 커다란 고목이 중심을 잡고 있어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고려동종, 범화경절본사본, 대웅보전, 영산화궤불탱화 등의 보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부화(浮華)한 사찰과는 전혀 거리가 멀다.

내소사 건축양식은 앞면과 두 옆면을 쌓아올린 기단 부위에 낮은 건물기단을 갖추고 있으며 초석은 자연석이다.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보물 제291호인 대웅보전 문짝에 새겨진 창살무늬다. 국화와 연꽃 문양이 새겨



4월이면 내소사에는 벚꽃이 만발한다.

진 문살이 채색 없이 말간 나뭇결을 그대로 내보이고 있다. 소박하고 정교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로 하여금 경건한 신앙심마저 자아낼 정도다. 내소사 부속 암자인 지장암은 내소사를 방문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지나치는 곳. 전나무 숲길 옆으로 샛길이 나 있고 100m만 들어가면 볼 수 있으니 큰 수고로움을 요하지 않는다. 거친 바위 절벽 아래 새가 둥지를 튼 듯이 놓여 있다.

직소폭포 트레킹도 즐겨보자. 일반적인 코스는 내소사 옆 등산로를 따라 관음봉 삼거리까지 간 후 '변산의 속살'로 불리는 직소폭포를 보고 다시 관음봉삼거리로 돌아와 원암마을로 내려오는 길. 약 3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된다. 줄참나무, 때죽나무 등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봄이 왔음을 실감할 수 있다. 아이들과 함께라면 직소폭포까지만 갔다와도 된다. 1시간 30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다.

부안의 맛 백합죽과 곰소 젓갈들

변산의 먹거리는 풍성하고 탐스럽다. 싱싱한 생선회는 기본이고, 제철음식도 여럿이다. 변산 최고의 별미로 꼽히는 것은 바지락죽. 기름진 서해 갯벌에서 금방 캐낸 싱싱한 바지락을 가지고 요리하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다.

변산에서 지나칠 수 없는 또 다른 메뉴는 백합죽이다. 백합은 다른 조개에 비해 조갯살이 푸짐하고 탱탱한 것이 특징이다. '맛보다 영양으로 먹는 조개'란 말이 있을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는다. 달짝지근한 첫맛과 씹싸름한 끝맛을 지닌 백합은 물이 좋을 땐 회로, 저녁 무렵엔 탕이나 구이로 다양하게 변신한다.

변산까지 와서 젓갈을 맛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젓갈 산지로 가장 유명한 곳은 곰소항. 풍부한 해산물과 천일염을 이용해 옛날부터 젓갈을 만들었는데, 교통이 불편했던 점이 오히려 저장 문화가 발달하는 결과를 낳았다. 온갖 종류의 곰소 젓갈은 변산반도 근해에서 어획되는 어류를 원료로 한다. 곰소 염전에서 1년 이상 저장하여 간수를 제거한 깨끗한 소금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위생적이며 맛 또한 담백하다.

제법 크고 버젓한 건물에 들어선 젓갈 마트도 많이 생겼지만, 진짜는 항구 바로 옆의 재래시장. 여러 종류의 건어물이 수북하고, 팔팔한 생선을 구경하는 재미가 쏠



부안영상테마파크에는 드라마에 사용됐던 다양한 소품이 전시되어 있다.

쏠하다. 곰소항 인근에는 젓갈정식을 내는 식당들이 몰려 있는데, 1만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푸짐한 상을 받을 수 있다. 어리굴젓, 오징어젓, 창란젓, 낙지젓, 꼴뚜기젓, 갈치젓, 갈치숙젓, 명란젓, 바지락젓 등 갖가지 젓갈이 상에 가득 오른다.

격포항 인근에 사극전용 세트장

격포항 인근에 있는 부안영상테마파크는 조선시대 한양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사극전용 촬영세트장이다. 4만5,000평의 부지에 궁궐 24동, 민가 11동 등의 집들과 200m 길이의 성곽, 정자와 연못, 저잣거리 등이 사실적으로 재현돼 있다.

〈태양인 이제마〉를 비롯, 〈불멸의 이순신〉, 최초의 추리사극인 〈별순검〉, 〈쾌도 홍길동〉 등의 TV드라마가 이곳에서 촬영됐다. 세트장 중심에는 인정전(仁政殿)을 재현해놓았다. 영화 〈왕의 남자〉 역시 이곳에서 80% 이상 촬영했다. 바닥을 화강암 박석으로 처리하고, 임금만 다닐 수 있었던 어도(御道)를 만들어놓는 등 실재와 별반 차이가 없다. 인정전을 나와 오른쪽으로 돌아서면 연산군이 침소와 집무실 등으로 사용하던 사정전(思政殿)이 나온다. 사정전 내부의 오른쪽 끝방은 공길이를 왕을 향해 활을 쏘는 장면이 촬영된 곳이다.



부안의 별미 곰소 젓갈(왼쪽 사진과 백합죽.

〈달팽이의 별〉(2011·이승준 감독)은
어느 장애인 부부의 세상살이를 다룬 영화다.
한편으론 안쓰럽고 서글프기도 하지만
그들은 비장애인보다 다를 바 없는
우리 주변의 그냥 보통사람들이다.

글·정재형 (동국대 영상대학원 교수·오프앤프리 확장예술제 조직위원장)

〈달팽이의 별〉 장애인 부부의 삶에서 인간의 참모습을 보다

감독이 달팽이라고 칭한 것은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장애인들이 시청각을 다 상실하여 촉각으로만 사물을 인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들만의 세계, 즉 ‘별’이라고 이름지었다. 냉소적인 의미도 느껴진다. 당신들이 우릴 인정하지 않으니 우린 우리끼리 살기로 했다. 여기 지구는 인간의 별이지만 우리 우주인들은 달팽이의 별에서 살겠다. 약간 서글픈 느낌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들이 부자유

다큐멘터리 〈달팽이의 별〉은 나사렛대학에 다니는 영찬씨를 중심으로 아내와의 삶을 사적으로 그려나간다. 이 영화에는 사건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는 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하며 평소 시와 소설, 수필 등을 쓰면서 공모에 응모하여 장학금을 받고자 노력한다. 많은 장애인 동료 선배들이 그의 집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평소 집에서 부부가 하루 종일 보내는 일상을 그저 찬찬히 기록해나간다. 영화는 영찬씨 내면을 대변하는 내레이션을 들려주면서 시적인 세계로 관객을 인도한다.

영화는 부부의 정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것이 달팽이의 별이라는 제목을 받쳐주는 의미로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별 하면 어딘가 보금자리를 연상하게 되고 이들 부부는 세상이 뭐라고 하든 안락한 별의 거주자들이다. 한편으론 서글프기도 하면서 그렇게라도 행복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란 생각이 든다. 바로 공동체 의식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부자유에 놓여 있다.

“사람의 눈, 귀, 가슴들은 대부분 지독한 최면에 걸려 있거나 강박에 사로잡혀 있거나 자아의 깊은 늪에 빠져 세계를 전혀 모른 채로 늪어간다. 그런 눈과 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나처럼 우주인이 되면 된다”

사회에 편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 깨나가

이 영화에서는 장애인의 감각이 더 발달돼 있고 예술적 성향이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 영화는 그의 두 가지 면, 그가 장애인으로서 힘든 점과 남들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면을 보여준다. 영찬씨가 운동하는 장면이 있다. 그는 앞으로 뚫다고 생각하고 뛰지만 점점 뒤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어 우스꽝스럽다 못해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다. 하지만 그의 시적 내레이션은 남들보다 더 탁월한 예술적 감성이 드러난다.

영화를 보고 이들 장애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건 일차적인 감동일 뿐이다. 이차, 삼차적인 감동은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더 이상 이들을 차별할 근거는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다. 불구라는 점 때문에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사회적 편견이다.

장애인들이 차별받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하나의 척도다. 그들에 의하면 장애는 신의 축복이며 완전해지기 위한 준비단계이다. 이런 말을 들을 때면 관객들은 모골이 송연해지는 숙연함을 느낄 정도다.

“가장 값진 것을 보기 위하여 잠시 눈을 감고 있는 거다. 가장 참된 것을 듣기 위하여 잠시 귀를 닫고 있는 거다. 가장 진실한 말을 하기 위하여 잠시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다.”



〈달팽이의 별〉을 보고 장애인들에게 동정심을 갖는 건 일차적인 감동일 뿐 이차, 삼차적인 감동은 ‘그들이 나와 다르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나아가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들게 된다.

영화는 사회에 편재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하나씩 부숴나간다. 지능이 낮다든가, 무능하다든가, 심지어는 괴물이라든가 하는 근거없는 미신을 말이다. 장애인 문제는 자기중심주의가 얼마나 치졸한 것인가를 폭로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같음과 다름이라는 철학적 명제 또한 여기서 기인한다. 나는 남과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가. 이 철학적 성찰은 인간이 나는 누구인가를 캐는 길에서 마주치는 중요한 질문이다.

솔직히, 영화 속에서 우린 장애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인간의 참모습을 본다.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신앞에서 불완전하고 무능력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 아닌가. 장애인을 보면 문득 깨닫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이 영화는 바로 그런 감동을 준다.



땀내 살짝 날 정도의 꾸준한 걷기는 치매 발병 요인을 낮춰준다.

뇌를 쓰고, 걷자! 왔던 치매도 도망간다

누구나 나이 들어 치매에 걸릴까 봐 걱정한다.
‘본인은 천국, 가족은 지옥’이라는 치매.
이것만큼 질병의 부담을 주변에 크게 지우는 병도 없다.

글·김철중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영상의학과 전문의)

69세 할머니 박모씨의 목소리는 그 나이 때 여성보다 낡은 고음이고 활기차다. 그의 스케줄 달력에는 주부대학과 인터넷 강좌, 동창 모임 등 일주일 일정이 빼곡하다. 현재 모습으로는 도저히 상상하기 어렵지만 그는 1년 전만 해도 초기 치매 환자였다. 치매 그림자가 박씨에게 스며든 것은 지난해 봄. 어느 날 심한 우울감과 급속한 기억 장애가 찾아왔다. 집에서 혼자 자내는 생활은 ‘사고’의 연속이었다. 가스불 위에 국을 올려놓고 외출해 화재가 날 뻔했던 것이 몇 달 사이 서너 번 있었고, 지하철 환승역을 계속 놓쳐서 두 시간을 왔다갔다 해매는 등 깜박 정신 줄 놓기가 다반사였다. 집에 온다던 자식들이 방문을 미루면

울화가 며칠씩 갔다. 만사가 귀찮아졌고 매사가 부정적으로 변했다.

박씨가 대학병원 신경과를 찾은 작년 8월, 진단 결과 경도(輕度)의 인지 장애라는 판정이 나왔다. 초기 치매를 말한다. 그는 의사 처방에 따라 뇌기능 활성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때부터 치열한 머리싸움이 시작됐다. 프로그램은 ▲매일 일기 쓰기 ▲하루 5개 이상의 전화번호를 순방향과 역방향으로 외우기 ▲날말 맞추기, 숨은 그림 찾기 등 치매 예방용으로 제작된 게임하기 ▲일주일에 네 번 이상 빠르게 30분 걷기 ▲햇볕 쬐며 산책하기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고등어 등 등푸른생선 챙겨 먹기(‘오메가3’ 성분이 뇌혈관 보호 효과)며 일주일에 한 번 카레 먹기(‘큐커민’ 성분이 치매 예방 효과)도 있었다. 모두 치매 예방에 좋은 것들이다. 그렇게 하길 3개월, 박씨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었다. 처음 병원에 왔을 때 24점이던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38점으로 급상승했다. 이제 박씨의 노년 삶이 치매에서 다소 멀어졌다.

뇌 용량 늘리기, 외국어 공부 제일 좋아

100세 수명시대에 최대 공포는 치매다. 더욱이 요즘에는 50대 후반에 치매에 걸리는 초기 치매 환자들이 늘었다. 치매 치료를 받은 50대 환자가 2006년 1,624명에서 2010년 2,891명으로 5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흔히들 건망증과 치매를 혼동하는데, 자동차 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면 건망증이고, 키를 보고도 그게 자동차 키인 줄 모르면 치매다.

기억력과 지적 능력이 파괴되는 치매는 노화 현상으로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이 뇌에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파괴해 생기는 병이다. 뇌졸중·고혈압·당뇨 등으로 뇌혈관이 손상되면서 혈관성 치매도 나타날 수 있다. 치매 원인이 아직 확실치 않아 진행을 늦추는 것 외에는 치료가 힘들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처럼 노력 여하에 따라서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발생을 지연시킬 수

있다. 뇌기능 사용량을 다양하게 늘려놓으면 실사 치매로 일부 뇌세포가 손상되더라도 그것을 보충해줄 뇌기능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이다. 뇌용량을 늘리려면 평소 뇌가 쓰지 않던 것을 새로이 자주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은 외국어 공부나 치매 예방에 가장 좋다고 말한다.

땀내 살짝 날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최근의 의학 연구 결과 치매 예방에 좋은 것이 ‘빠르게 걷기’다. 땀내 살짝 날 정도의 꾸준한 걷기가 뇌 혈류를 개선하고, 특히 기억 중추인 해마(海馬)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부단한 속보(速步)는 치매 발병 최대 위험요인인 ‘3고(高)’, 즉 고혈압·고혈당·고지혈증을 모두 낮추니 일석이조다.

주변에서 보면, 어르신들을 위한답시고 모든 것을 대신해주거나 자꾸만 쉬게 하는데, 그러면 그들의 정신건강을 되려 망칠 수 있다. 어르신 중에 최근기억능력을 상실했거나 우울감이 짙어지고 남을 의심·공격하는 성향을 보이면 일단 초기 치매를 의심해야 한다. 이럴 때는 치매라는 말을 쓰지 말고 “기억력 검사 하자”며 병원 진단을 유도하는 게 좋다. 어찌 됐든 노년에 맑은 정신으로 즐겁게 지내려면 부단히 몸과 머리를 써야 한다.



“암행어사 출또요~” 왕의 바른 눈과 귀 민중들에게 구원자

“암행어사 출또요~ 한 번을 고태하니 강산이 무너지고 두 번을 고태하니 초목이 떠는 듯...”

이는 판소리 춘향전에서 이몽룡이 암행어사 출두를 하는 장면이다.

조선시대의 암행어사는 부정부패 척결의 선봉장이었다.

글·김정미 (시나리오 작가)



일러스트·신봉호

이몽룡의 암행어사 출두 장면은 <춘향전>을 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가장 속 시원해하는 장면일 것이다. 온갖 악행을 일삼았지만 그 누구도 제지하지 못했던 탐관오리 변학도를 일거에 응징한 암행어사 이몽룡은 마치 메시아와도 같다. 조선시대에는 암행어사가 백성의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고 이를 해결해주었다. 그래서인지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하여 ‘어사우(御史雨)’라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이는 암행어사가 탐관오리의 학정에 시달리던 백성들이 기다려 마지않던 존재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암행어사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은 조선조 중종대이다. 원래 지방을 돌아보는 것은 사헌부의 일이었는데, 이 또한 관료 사회의 인맥과 학맥 등으로 얽혀 시시비비를 바로잡지 못할 때가 많았다. 암행어사는 임금이 지방수령의 잘잘못과 백성들의 사정을 중간단계 없이 직접 듣겠다는 의지에

서 나온 제도이다.

암행어사는 누가 임명되는지 그 임무가 무엇인지 비밀에 부쳐졌고 암행어사에 임명된 즉시 파견지로 떠나야 했다. 이때 암행어사는 임금으로부터 봉서와 사목(혹은 절목), 마패, 유척 등을 하사받았다.

지방수령의 잘잘못 직접 듣는 제도

‘봉서’는 암행어사 임명장과 같은 것으로 파견지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적혀 있고, ‘사목’은 감시해야 할 대상과 내용을 조목별로 구체적으로 지정해준 것이다. ‘마패’는 지방에 내려가 각 지역에서 역졸이나 역마를 동원할 수 있는 증명이었다. 이는 대부분 지방에 출장 나가는 관료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암행어사만의 고유한 물건은 아니었다. 마패는 지름이 10cm 정도 되는 둥근 구리패로, 한 면에 자호·연월일과 ‘상서원인(尙

瑞院印)’이 새겨져 있어 중앙의 상서원에서 발급했다는 것을 증명하고 다른 한쪽 면에는 말을 새겼다. 마패에 그려진 말 수만큼 말을 이용할 수 있었다. 말의 수는 1필부터 10필까지로 그 수가 많을수록 고위직에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음을 의미했다. 마패는 지방에 파견된 중앙 관리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암행어사가 이를 인장 대용으로 사용하고 출두 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데 이용하면서 암행어사의 대명사인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다.

사실 암행어사를 대표하는 물건은 마패라기보다는 ‘유척’인데, 유척은 낫쇠로 만든 자로, 막대기 모양을 하고 있다. 암행어사에게는 대개 두 개의 유척을 지급했다. 하나는 죄인을 매질하는 형구크기를 법전의 규정대로 만들었는지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도량형을 나라에서 정한 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다. 이는 지방의 수령이 형구를

크게 만들어 함부로 백성들에게 남용하는 것을 막고, 쌀로 세금을 징수할 때 되를 크게 만들어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하여 이를 수령이나 아전이 착복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함이었다. 이 유척은 암행어사가 암행 중 만나게 되는 살인사건 등에서 시신을 검사할 때도 쓰였다.

지방사무에 밝고 강명한 관료들 발탁

암행어사의 발탁조건은 강명한 사람, 즉 올바르게 정정당당한 사람이어야 하며, 수령을 한 경험에 있어 지방의 사무에 밝아야 하며, 일정기간 고단한 여행에 견딜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이 받쳐주는 사람이어야 했다. 암행기간은 오래 머물면서 지방 관리와 안면을 트고 친해져 공정성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이루어졌다. 암행기간 동안의 비용은 고종 당시 예를 보면 하루 80리를

기준으로 36냥 정도로 당시의 상황을 볼 때 그리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고 한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학자이자 관료인 정약용도 암행어사로 나간 적이 있는데 정약용이 파견된 때를 재구성하면 이러하다.

정조 18년(1784) 10월 말 홍문관 수찬으로 있던 정약용은 밤중에 정조의 은밀한 부름을 받는다. 왕은 정약용에게 봉서와 사목, 마패, 유척을 내리는데, 봉서의 겉에는 이를 동대문 밖에 나가 열어보라고 쓰여 있었다. 정약용은 그 길로 집에도 알리지 않고 바로 동대문 밖으로 나가 임금이 내린 봉서를 열어보았다. 봉서 안에는 정약용이 가야 할 암행지로 경기북부지역이 지정되어 있고 가서 살펴할 일들이 적혀 있었다. 사목에는 구체적으로 흉년에 감해준 조세를 수령이 사립롭게 쓰거나 아전들이 훔치지 않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라는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마패는 두 개를 받았는데 말 세 필이 새

겨진 마패는 정약용 본인이 가지고 한 필이 새겨진 마패는 동행한 아전에게 주었다. 정약용은 15일가량 경기북부지역을 돌아다닌 후 한양으로 돌아와 임금에게 서계와 별단을 올렸다. 서계는 대개 수령의 행적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고 별단에는 보고들은 민정과 효자·열녀 등의 미담을 적었다. 정약용은 암행기간 동안 연천현감과 삭녕군수의 비리를 감찰 고발하였고, 당시 경기감사이던 권력이 서용보의 과실을 고발하기도 하였다. 정조는 정약용이 올린 서계의 내용대로 즉각적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하였다.

이렇듯 암행어사는 왕의 눈과 귀가 되어 학정을 일삼는 탐관오리를 징벌하였으며, 세간의 미담 또한 발굴해 중앙에 알리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기에 암행어사는 <춘향전>의 이몽룡처럼 민중의 구원자로서 인식되었고, 민간에서는 암행어사와 관련한 민담들이 많이 만들어져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한국 축구 뒤에는 ‘용감한 두 감독’

최강희 감독 월드컵 진출 티켓·홍명보 감독 런던 올림픽 입상 노력



지난해 12월 조광래 감독에 이어 A대표팀의 지휘봉을 잡은 최강희 감독은 K리그에 대해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며 2014 브라질 월드컵에 한층 더 가까워졌다. 사진은 A대표팀 선수들의 훈련을 지켜보고 있는 최강희 감독.

한국 축구 사령탑에는 ‘두 개의 태양’이 있다.

최강희 월드컵대표팀 감독과 홍명보 올림픽대표팀 감독.

최강희 감독은 월드컵대표팀을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으로 인도했고, 홍명보 감독은 ‘아우팀’

올림픽대표팀을 2012 런던 올림픽 본선에 진출시켰다.

이들은 특유의 신뢰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2014 브라질 월드컵 출전 최종 티켓과 런던 올림픽

입상이라는 목표에 도전한다.

글·장민석 조선일보 스포츠부 기자

지난 2월 말은 한국 축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시기였다. 2월 22일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최종 예선 오만 원정 경기를 벌였고, 29일엔 최강희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3차 예선 마지막 경기를 치렀다.

조 선두만 올림픽 본선에 직행하는 상황에서 올림픽대표팀은 오만을 꺾지 않으면 카타르와의 6차전까지 살얼음판 승부를 벌여야 했다. 국가대표팀은 더욱 절박했다. 쿠웨이트에 패하면 3차 예선

에서 탈락하며 8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좌절될 수도 있었다.

다행히 결과는 최상이었다. 올림픽대표팀은 오만을 3대0으로 대파하고 7회 연속 올림픽 본선 출전을 확정했다. 국가대표팀도 전반 내내 쿠웨이트에 밀리며 고전했지만 후반 터진 이동국과 이근호의 골로 2대0 승리를 거두며 최종 예선 진출에 성공했다.

월드컵팀 초반 네 경기에 사활

힘겹게 고비를 넘긴 최강희호(號)는 최종 예선 A조에 속해 이란·우즈베키스탄·카타르·레바논과 본선 진출을 다투게 됐다. 최종 예선에선 각 조 1·2위 네 팀이 본선에 직행하고, 조 3위 두 팀은 플레이오프를 거쳐 승리한 팀이 남미 5위 팀과 본선행 티켓 마지막 한 장을 놓고 승부를 겨룬다.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레이스에서 최강희 감독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초반 네 경기다. 한국은 6월 8일 카타르와의 원정경기로 1차전을 치르고 나흘 뒤인 6월 12일 레바논을 홈으로 불러들여 2차전을 벌인다. 가을에는 최종 예선의 최대 고비로 꼽히는 우즈베키스탄(9월 11일)과 이란(10월 16일) 원정길에 나서야 한다. 초반 판세를 결정할 네 경기 중 세 경기를 원정으로 치르게 된 것이다. 최 감독은

“특히 카타르에서 돌아와 홈경기로 치르는 레바논전은 역(逆)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컨디션 조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과 함께 본선 티켓을 다투 후보로는 역시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꼽힌다. 이란은 최근 한국과 수차례 명승부를 벌인 숙적이다. 역대 전적은 9승7무9패로 호각세. 한국 축구는 1996·2000·2004·2007·2011년 아시안컵 8강에서 이란을 내리 만났다. 5회 연속 8강 대결의 결과는 2승1무2패. 질긴 인연은 월드컵 최종 예선까지 이어지고 있다. 2010 남아공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2무를 기록한 양팀은 이번 최종 예선에서 또 한 번 숙명의 대결을 벌이게 됐다.

이란·우즈베키스탄과 선두 다투 듯

우즈베키스탄도 만만치 않은 상대다. 유럽식 파워 축구를 구사하는 우즈베키스탄은 C조 예선 최종전에서 일본을 1대0으로 누르는 등 5승1무로 조 1위를 차지했다. 카타르는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의 자존심을 걸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 전력을 다할 가능성이 크다.

최강희 감독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는 해외에 있는 선수들의 경기력을 고려해 최상의 전력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영(아스널)과 지동원(선덜랜드) 등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지 못



한국 올림픽대표팀이 지난 2월 22일 오만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며 런던 올림픽 진출을 확정지은 후 기뻐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은 선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7회 연속 올림픽 진출이란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유럽과가 걱정이다. 최 감독은 “K리그 개막과 더불어 국내 리그 일정에 맞춰 선수들을 살피고 있지만 2주 후부터는 해외에서 뛰는 선수들과 우리가 상대할 선수들이 활약하는 소속팀 경기를 관전하면서 본격적인 전력 분석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명보 감독은 올 7월 자신의 지도자 인생에서 가장 큰 기인 런던 올림픽을 앞두고 있다. 홍 감독은 2009년 이집트 U-20(20세 이하) 월드컵 사령탑을 맡을 당시부터 런던 올림픽을 꿈꿨다. 당시 8강을 달성했던 주축 멤버 김보경·홍정호·김원권·김민우·서정진 등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거쳐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도 활약할 예정이다. 2009년 감독 부임 당시 한국 축구의 미래를 책임질 신예 육성과 런던 올림픽에서의 만족할 만한 성적을 목표로 세웠던 홍 감독이 런던 올림픽에서 한국 축구에 최초의 올림픽 메달을 안겨줄지 관심을 끈다.

올림픽팀 유럽과 가세하면 해볼 만

메달 가능성은 결코 작지 않다. 기성용(셀틱)·구자철(아우크스부르크)·지동원(선덜랜드)·손흥민(함부르크) 등 올림픽팀 연령대(23세 이하)의 유럽과 스타들이 나서고, 와일드카드(3장)로 영국 런던에서 뛰는 박주영(아스널)과 부상에서 회복 중인 프리미어리그 이청용(볼턴), 경험이 풍부한 이정수(알 사드)나 정성룡(수원) 등이 합류한다면 사실상 월드컵대표팀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홍명보 감독은 와일드카드 차출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역대 올림픽에서 와일드카드가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홍 감독은 “축구란 것이 좋은 선수들을 모아놓았다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A·B·C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다.

축구의 본류(本流)인 유럽 팀들이 전통적으로 올림픽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것도 한국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더구나 올해는 6월 유럽축구선수권(유로 2012) 이후 올림픽이 열리기 때문에 유럽 팀들이 정상급 프로 선수들을 차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홍명보 감독은 “런던 올림픽은 지도자로서 한번 승부를 내고 싶은 무대”라며 “감독이 있고 원대한 스토리를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마술 시대!

동화의 세계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다

TV프로그램, 영화는 물론 인터넷 동호회,
스마트폰 앱에서도 마술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술 2.0 시대'라고 할 만큼 일부 마니아들이
즐기던 마술이 대중 속으로 깊고 넓게
파고드는 중이다.

글·서일호 (TV조선 문화스포츠투 기자)



명절에나 볼 수 있던 TV 속 마술 프로그램이 <최현우·노홍철의 매직홀>, <이은결의 스토리텔링 매직쇼> 등처럼 이제는 고정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매직홀> <매직쇼>와 같은 마술 프로그램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마술을 소재로 한 데다, 세계 톱클래스 마술사들이 등장하는 점이 인기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요즘 국내 마술사들은 세계무대에서 빠르고, 개성 있으며, 창의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2004년 전문 마술사 양성 과정이 동아인재대학에 처음 만들어진 데 이어, 2008년 설립한 동부산대학 마술엔터테인먼트학과에선 각종 세계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는 수상자를 매년 배출하고 있다. 이들 두 개 학과에서만 해마다 50~60명의 젊은 마술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투더폰' 등 마술 앱도 인기

김청 동아인재대학 마술과 교수는 "2000년대 초반 최현우, 이은결이 세계마술대회에서 우승하면서 마술 붐이 일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마술학과까지 생겼다. 최근 TV 마술 프로그램들이 여럿 생겨 제2의 붐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에선 축구 다음으로 가장 빨리 정원이 마감되는 것이 마술 과정이다. '전국교사마술동호회' 회원은 2,400명 정도이고, 교사 대상의 '이야기로 풀어가는 마술수업' 온라인 강좌를 이수한 이들도 3년 만에 3,000명을 넘어섰다.

과거에는 마술사들이 동료나 사제 사이에도 쉽게 가르쳐주지 않고 꼭꼭 숨겨뒀던 마술을 인터넷의 발달로 유튜브, P2P 사이트 곳곳에 올리고 있다. 한 신세대 마술사의 경우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개발했다. 평소 배우기 어려운 마술을 손안의 스마트폰에 담은 '마술 같은 마술'을 최근 선보인 마술사는 스마트매직컴퍼니 진효범 대표다.

마술의 대중화를 고민하던 진 대표는 스마트폰 열풍이 불자 지난해 앱 개발 회사 '스마트매직컴퍼니'를 설립했고, '인투더폰'·'체인지매직'·'쇼매직'·'픽처조이스'·'드로우매직' 등 5개의 마술 전문 앱을 만들어 앱 스토어에 등록했다. 이 가운데 '인투더폰'은 현재 97개국에 출시돼 해외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진씨가 직접 찍은 마술 동영상도 유튜브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마술 카페·바에서 스트레스 해소

지난 1월 말에는 국내 최초로 스마트폰 온라인 마술학원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마술학교'를 출시했다. 스마트폰에서 앱을 내려받아 동영상을 보고 간단하게 마술을 배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현재 '마술학교' 회원 수는 2만여 명에 달한다.

마술 카페나 바에서는 마술사들이 직장, 학교에서의 스트레스도 날려주고 있다.



마술사 최현우
"마술은 관객들에게
신기함을 주는
연기"

"많은 분들이 마술을 보면서 희망이나 판타지를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 2월 21일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마술 연습실에서 만난 마술사 최현우(34)씨는 최근 마술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최현우의 상상극장' 전국 투어를 하고 있다.

최씨는 마음으로 고른 카드를 정확히 알아맞히고, 눈앞의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소통'의 마술사다. 최근 마술이 제2의 붐을 맞고 있어 방송에서도 많이 불러준다며 자신은 마술사와 방송인 중간 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생방송으로 마술을 하다가 실수할 경우를 대비해서 실수를 자연스레 넘길 수 있는 실재 대비책도 따로 준비합니다. 마술은 관객들이 신기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연기입니다."

그는 고등학교 때 마술을 배우면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우연히 시작했는데 직업이 되었다고 한다.

최씨는 각 나라마다 마술에 대한 반응이 다른데 일본은 카드나 동전 등 작은 마술을 좋아하고, 미국은 자유의 여신상을 사라지게 하는 등 큰 마술을 좋아하며, 유럽은 멘탈 마술을 즐기는 데 비해 우리는 작은 마술과 큰 마술 둘 다 좋아한다고 했다.

"마술은 즐겨야 하는데 한국 관객들은 유난히 마술의 속임수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마술 기술은 부모에게도 가르쳐주지 않는 게 기본 룰이지만 생활마술은 일반인에게도 교육 차원에서 기술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마술사 이은결씨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서로 취향이 다르다"면서 "이은결씨는 키도 크고 시원시원해서 무대마술을 좋아하고 나는 동전마술이나 심리마술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60~70세까지 공연을 계속해 이른바 국민마술사가 되고 싶고 특히 한국마술을 발전시킨 마술사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마술사 이은결
“마술은 쇼,
있는 그대로
즐겨주세요”



마술사 이은결(31)씨는 현재 '이은결의 더 일루션' 전국투어 공연 중이다. 그에게서는 촌스러운 속임수를 구사하는 구닥다리 마술사나 돈벌이에 급급한 속물 마술사의 이미지를 찾아볼 수 없다. 오히려 당당하고 깔끔하며 배우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이씨가 마술을 처음 시작한 것은 중3 때였다. 신문을 보던 아버지가 그에게 "소극적인 성격을 고치자"며 마술 배울 것을 권유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씨는 만화 그리기를 좋아하는 내성적인 소년이었다.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마술학원에 나가게 된 그는 점점 마술의 마력에 빠져들었다. 고2 때는 대학로에 조그만 무대를 만들어 행인들에게 마술을 보여줬고 난생처음 큰 박수를 받게 되자 마술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마술사들은 피나는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속이나 감시하듯 노력하는 분들은 정말 미워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면서 특수효과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주인공이 총을 맞아 피 흘리는데 '저거, 가짜 피야'라고 소리치지 않잖아요. 마술도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고 즐겨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신세대 마술에는 감정과 스토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연인들이 만나 사랑하는 내용을 짧은 마술 한 편으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나름대로의 마술철학을 정립해가고 있는 '신세대 마술사' 이은결씨는 각종 세계대회를 휩쓸었다. 일본에서 열린 '세계마술대회'에서 우승했고 남아공에서 열린 '인터내셔널 매직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으며 '미국마술가협회(SAM)' 주최 100주년 세계대회에서 100주년 기념상(대상), 관객상, 하이스코어상 등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씨는 해외에서 수업을 받지 않은 '신토 불이' 마술사다. "어렸을 때는 외국 나가서 마술을 배워 공연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바뀌었어요. 외국 마술사들이 한국에 와서 마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고 제가 그 견인차 역할을 하고 싶어요."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3학년 양혜원씨는 "선배 소개로 마술바에 가봤는데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쌓인 스트레스가 시원하게 사라짐을 느꼈다"고 말했다.

마술을 배우는 이유도 다양해졌다. 마술학원 수강생인 이선희 명지전문대 교수는 "청소년들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면서 "학생들과 같이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 마술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영화에서는 마술학교를 배경으로 한 '해리포터' 시리즈가 10년 이상 인기를 끌어왔다. <해리 포터와 마법사의 돌> <해리 포터와 비밀의 방> <해리 포터와 아즈카반의 죄수> 등 '해리 포터' 시리즈는 총 7부작으로 구성됐는데, 친척집에서 천대받던 고아 소년 해리 포터가 호그와트라는 마법 학교에 입학해 부모를 죽인 마왕을 퇴치하고 마법사 세계의 영웅이 되는 과정을 환상적으로 그린 동화다. 이 작품은 1999년 발간되자마자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 종합순위 1위, 인터넷 서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를 비롯해 미국 주요 일간지의 일반 도서목록 정상권을 휩쓸어 21세기 초강력 베스트셀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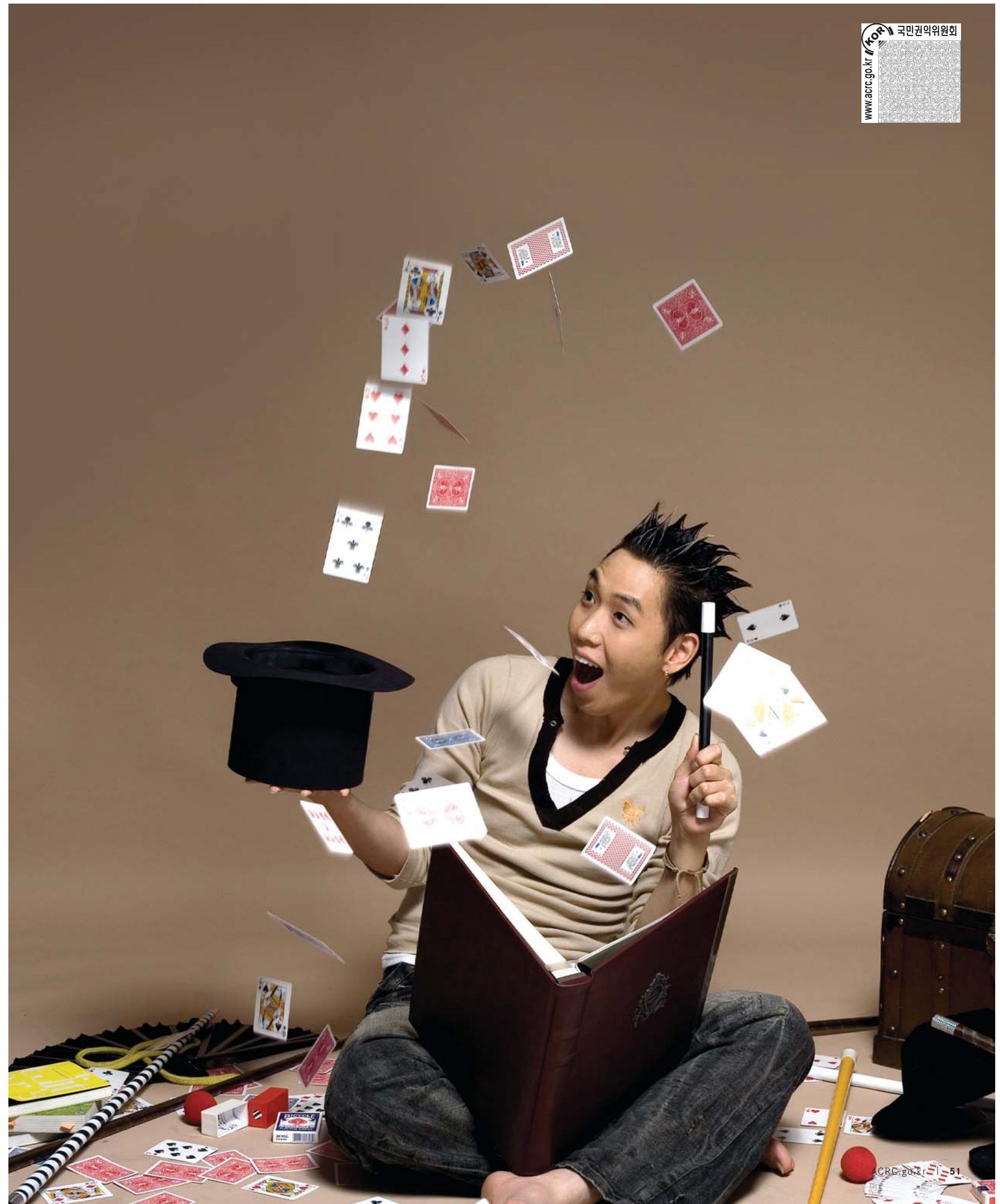
뉴스위크는 '포터 마니아(Potter mania)'가 전 세계 독서 시장을 휩쓸고 있다'는 분석 기사를 게재하면서 일본의 애니메이션 주인공 '피카츄'처럼 전 세계 어린이들을 동시에 뒤흔들고 심정적으로 연결시킨 사건으로 평가했다.

소통과 공감의 놀이로 자리 잡아

한편 걸그룹 '브라운아이드걸즈'는 TV에 나와 "아브라카다브라"라는 서양 마술 주문을 외웠고, '소녀시대'는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대중들을 향해 "소원을 말해봐"라고 노래했다.

최첨단의 IT·통신 회사들도 마술 코드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08년 LG텔레콤은 3세대 이동통신 브랜드를 '오즈'(<오즈의 마법사>에서 따옴)로 정했고, 같은 해 SK텔레콤은 '생각대로' 광고에서 신데렐라의 주문 "비비디바비디부"를 차용했다. 삼성전자는 1990년대 처음 내놓은 멀티미디어PC에 '매직스테이션' 이름을 붙인 데 이어, 2012년형 스마트TV 신제품 모델로 마술사 데이비드 카퍼필드를 기용했다.

영어 '매직(magic)'은 고대 페르시아 사제 계급을 뜻하는 '마기(magi)'에서 유래했다. 함께 출발한 종교·과학·철학은 첨단을 달리고 있지만, 마술은 여전히 초기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덕에 고대인들이 느꼈던 '놀라움'을 고스란히 현대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모른다. 철저한 계산과 피나는 연습으로 완성되는 유쾌한 트릭, 마술. '마술 2.0 시대'를 맞아 현대인들의 소통과 공감을 위한 새로운 놀이문화로 자리 잡았다.



만 0~5세 유아 보육료 순차 전 계층 지원

올해 만 0~2세 ‘5세 누리과정’... 만 3~4세는 내년부터 시행



3월부터 만 0세(생후~12개월)와 만 1세, 만 5세 아동에게 국가에서 보육료가 지원되기 시작했다. 또 만 5세(취학 직전, 7세)의 경우 ‘누리과정’이 시행되면서 전국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준 높은 공통 보육 및 교육과정이 펼쳐진다.

지난 3월부터 ‘5세 누리과정’이 시행됐다. 누리과정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 어린이집 보육료와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 보육료 및 학비 지원은 2009년 7월 전에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 2009년 7월부터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게만 제공했으나 2012년 3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모든 계층에게 해당된다. 사립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닐 경우 지원액은 월 20만원이며, 이보다 학비가 저렴한 공립유치원의 경우 실비를 지원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위해 지난 2월 1일부터 보육료·유아학비 접수를 시작했다. ‘5세 누리과정’ 시행을 위해 관련 자료를 발간·보급하고 교사 연수교육 과정을 진행하는 등 사전 준비도 마쳤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현재 운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 2011년 개정한 유치원 교육과정(5세 누리과정 포함), 5세 누리과정 해설서, 교사용

지침서(DVD 1개 포함), 교사용 지도서(11권)와 보조자료(DVD 11개) 등 총 4종(세부 총 26종)의 교사용 자료를 개발해 보급 중이다.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유치원 교사용 지도서의 경우 유아 교육과정·자료개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을 위촉해 집필하게 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을 만 0~5세 유아 전 계층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올 3월부터는 만 0~2세 유아 및 만 5세 유아(5세 누리과정)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만 3~4세 유아도 지원대상과 누리과정에 포함된다. 정부는 보육료 예산(국비)을 2008년 8,000억원에서 2012년 2조9,000억원으로 3.6배 확충했다.

유치원 유아학비와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은 2월 1일부터 주소지 주민자치센터에서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학부모는 지원신청 후 어린이가 유치원에 다닐 경우 ‘아이즐거웁카드’를,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결제하면 된다. 이미 지난해부터 보육료를 지원받았던 지원대상자는 올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글·권세진 기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신청 www.bo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 www.childcare.go.kr



논어의 발견 | 장주식 지음 | 자음과모음
280쪽 | 1만5,700원

흔히 ‘지당한 얘기’를 일컬어 ‘공자(孔子)님 말씀’이라고 한다. 〈논어(論語)〉는 바로 그 공자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다.

공자가 제자들과 나누었던 얘기, 사람이 나아갈 길이나 세상에 대해 툭툭 던졌던 말씀을 공자 사후(死後) 제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책이 바로 〈논어〉다.

그렇다 보니 〈논어〉에 나오는 공자님 말씀은 그야말로 단편적이다. 〈신약성서〉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은 그런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설화라도 있지만, 〈논어〉에는 그런 게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뜬금없다’는 생각마저 든다.

‘학이(學而)’니 ‘위령공(衛靈公)’이니 하는 식으로 편명을 정해서 글을 묶기는 했지만, 거기에 특

이론(名論)을 펼치는 부분이 있다. 공자가 “정치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름을 바로잡겠다(必也正名乎)”고 말한다.

그러자 제자 자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론이어서 동의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유시재 지우야(有是哉, 子之迂也)”라고 말한다. 이 대목을 저자는 “이런, 이런. 선생님, 너무 먼 얘깁니다. 이름을 바로잡아 뭣하시려고요”라고 풀이한다.

풀이만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 저자는 〈논어〉의 가르침을 현실과 접목시킨다. 학문의 자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학생들의 자살문제를 언급한다.

공자의 제자 안회(顔回)의 안빈낙도(安貧樂道)의 삶을 이야기하면서는 양극화(兩極化)문제와 복지의 필요성을 살짝 말한다. 군자의 삶에 대

귀에 쏙 들어오는 ‘공자님 말씀’

별한 통일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인(仁), 의(義), 군자(君子)라는 말들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중복되기도 한다. 그래서 〈논어〉는 어렵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다. 이 책은 바로 〈논어〉전체에 흩어져 있는 ‘공자님 말씀’이라는 구슬을 꿰어놓은 책이다. 구슬을 꿰려면 실이 필요하다. 저자는 학문, 인(仁), 언어, 나눔, 정의, 친구, 관계 같은 주제들을 실로 삼는다.

〈논어〉를 쉽게 풀이한 책인 만큼 저자는 곳곳에서 〈논어〉를 인용하고 풀이한다. 그런데 그 풀이가 참으로 자연스럽다.

예컨대 ‘자로(子路)’편에서 공자가 정명론(正

名論)을 펼치는 부분이 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못하는 걸 걱정 말고, 나의 능력 없음을 근심하라.” “군자는 남의 잘못을 떠벌리는 걸 미워하며, 끼리끼리 모여 남을 비방하는 걸 미워하며, 용맹스럽지만 무례한 것을 미워하며, 과감하지만 꼭 막힌 자를 미워한다.” “많이 듣고 의심스러운 건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말하면 허물이 적다. 많이 직접 보고 나서 확실하지 않은 건 빼버리고 그 나머지를 조심스럽게 실천하면 후회가 적다”처럼 인생이나 사회생활에 보탬이 되는 얘기들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하다.

글·배진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투명한 정부와 깨끗한 사회를 실현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각종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직자가 승진 또는 신규임용 시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고, 내부정보로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부패를 뿌리뽑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글·권세진 기자



김영란 위원장, 재외공관장 대상 특강

김영란 위원장은 2월 20일 오후 세종로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2012년 재외공관장회의>에서 재외공관장들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과 관련해 특강을 실시했다. 김영란 위원장은 청렴한 공직자상, 민원을 대하는 공직자의 자세, 기업활동 지원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강연했다.

신규임용·승진 공직자 청렴교육 의무이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총 650여 개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들은 신규임용이나 승진, 고위직 진입 등 공직 전환단계마다 각자의 직위에 맞는 수준별 맞춤형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2월 고위공직자들의 경우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한 바 있는데, 올해부터는 그 대상을 신규임용자, 승진예정자까지 확대한 것이다. 교육시간은 해당 공직자 개인의 단계에 따라 연 5시간 이상을 권장했으나, 기관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고, 실시범위도 기관에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사이버 교육과정도 추가로 개설하여 교육수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으며, 청렴교육 이수제도의 도입여부를 반부패경쟁력평가에 반영하여 실시기관에는 가점도 줄 예정이다.



내부정보로 주식·부동산 매매 공직자 신고 포상금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에 알게 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공익증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최근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 방침을 세웠다. 그중 하나가 공직자의 직무상 정보 이용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적극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 12월에도 한국○○ 연구원 기획조정부장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특 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건과 한국○○공사 과장이 내부 입찰정보를 외부에 전달하려던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각각 500만원씩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반부패 민간공모사업 23개 확정 정부보조금 지급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 공모사업으로 '반부패 문화 정착을 위한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 등 23개 사업을 선정, 총 3억4,100만원을 지원한다. 위원회는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10일까지 공모를 실시해 49개 사업의 신청을 받았으며, 6인의 외부 선정위원 등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권익위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많은 단체에 수혜가 가도록 사업 평균 지원규모를 최저 800만원에서 최고 2,500만원까지 나누어 지원한다. 특히 올해의 사업유형을 보면 어린이 대상 청렴연극, 청소년의 청렴의식 확산을 위한 캠프, 지자체 예산낭비 근절운동 등 반부패 분야와 학교폭력 전문상담원 양성 등 국민권의 증진분야에 다양한 사업이 선정됐다. 선정 단체와 사업은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권익誌 '모바일 앱' 서비스 시행

국민권익위원회는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국민권익지를 구독해 볼 수 있도록 '스마트 앱'을 개발하고 3월 16일부터 모바일 서비스를 전격 시행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제공하는 국민권익誌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으면 <국민권익> 신간이 나온 직후 알람 등 편의 기능도 제공하고, 해당 기사를 트위터, 이메일, 페이스북, 미투데이에는 물론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기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면에 실리지 못한 추가 동영상이나 사진 등 다양한 볼거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권익誌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민권익'으로 검색하여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후 사용하면 된다.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업무협약

국민권익위원회가 6개 기관과 공동으로 '청렴 선도기관 되기'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권익위는 3월 9일 서대문구 소재 청렴교육관에서 6곳의 기관장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권익위는 6개 기관과 공동으로 '청렴 실천 성공사례'를 만들기 위해 상호협력하며, 청렴성 제고를 위한 역량진단, 전문가 자문, 청렴교육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서로 협력하고, 효력은 협약 체결일부터 1년 동안으로 했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지난달 참여를 희망하는 총 34개 기관 중 기관 유형과 청렴도 정도, 추진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위사업청, 부산광역시, 경남교육청, 원주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대구도시공사 등 총 6곳을 선정할 바 있다. 이달부터 이들 기관들은 권익위로부터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요인에 대한 종합적인 조직역량진단을 받고, 직원들의 청렴교육, 취약분야에 대한 청렴도 측정, 이해관계자와 정책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설문조사 등을 지원받게 된다. 권익위는 연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간점검을 하고, 추진 결과에 대해서는 참여기관과 공동으로 연 2회(상·하반기) 평가 보고회를 열어 정책환류 등 연중 개혁노력을 기울여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권익위는 부패가 자주 일어나거나 청렴도가 낮은 '부패 고위험군(Rea zone)'을 대상으로 청렴실천 성공 사례를 진행해 공직 및 사회 전반으로 청렴을 실천하자는 분위기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김영란 위원장은 협약식에 앞서 6개 기관장들과 환담을 갖고 "관심을 갖느냐, 가지지 않느냐가 청렴 실천 사례를 늘리고 반부패를 줄이는 데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며 기관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경청하는 등 직원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국민권익>을 읽고 난 소감과 바라는 점 등을 엽서에 적어 보내주세요.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과 퀴즈 정답을 보내주시는 분들 중 다섯 분을 추첨해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응모마감 4월 30일)



독자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들겠습니다

고성 청간해변을 경관용 울타리로 바꾼다는 기사를 잘 읽었습니다. 고성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철책이 있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주민들도 큰 불편을 겪고 있었는데, 이제 철책이 조금씩 사라지고 경관용 울타리로 바뀐다니 강원도가 겨울옷을 벗고 새봄을 맞이할 것 같습니다. 이제 청간해변의 청정한 백사장도 마음놓고 가 볼 수 있겠군요. <국민권익>을 보면 볼수록 억울함이 없는 나라,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 같아 무척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꽃섬·전남 여수시)

온라인 민원건수가 100만건에 달했다는 기사를 보고 사실 놀랐습니다. 자세한 기사를 통해 2011년 국민신문고의 활동을 잘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100만건이라는 숫자에서 권익위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와 감동적인 사연들도 <국민권익>에서 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정경식·대전 중구)

‘역사 속 권익’ 내용이 매우 재미있고 유익했습니다. 조선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예나 지금이나 청렴 앞에서는 그 어떤 부정과 부패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확인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국민들이 조상들의 이런 정신을 본받아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나갔으면 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에 앞장서 주셨으면 합니다. (강상철·서울 서대문구)

지난 호 퍼즐 정답

	¹ 음		² 신	문	³ 고
	⁴ 부	수	입		총
	즈		⁵ 생	⁶ 원	
⁷ 풍	만			거	
운		⁸ 청	백	리	
⁹ 아	무	림			

1·2월호를 읽고 92명의 독자분이 엽서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권익위가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소통누리’를 감동적으로 읽었다는 독자가 많았고, 이동신문고를 비롯해 국민신문고의 활동을 상세하게 알게 됐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새로 연재되는 ‘역사 속 권익’과 ‘여행’에 대해서도 좋은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독자들의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국민권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호 퍼즐 정답자와 의견 채택된 분
선수영(인천 부평구) 김휘곤(울산 북구) 양서희(전북 장수군) 김철기(서울 동대문구) 김태현(경기 군포시)

P U Z Z L E

1	2				3
				4	
5			6		
		7			
8					

- 가로**
1. 도로의 폭이 갑자기 병의 모가지처럼 좁아진 곳에서 일어나는 교통 정체 현상을 무엇이라 할까요?
 4. 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재물에 대한 탐욕이 없음.
 5. 간장·고추장 등을 담는 종발보다 작은 그릇.
 6. 둥근 탁자.
 7. 신문, 방송 등에 실을 기사를 취재해 쓰거나 편집하는 사람은?
 8. “경찰청과 한국교총은 새 학기를 맞아 0000 예방에 함께 대처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0000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 선도과 피해학생 보호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 세로**
2. 목표로 삼거나 지목하는 곳.
 3. 의견이나 사상 등이 여럿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하나로 모아 정리하는 것.
 4. 무엇을 해달라며 부탁함. “부정 00 방지 및 이해충돌 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5. 1,000마리 접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6. 원자핵의 변환에 따라 생기는, 이용 가능한 에너지. 탄소 배출이 없어 기후변화 대비에 유익하죠.
 7. 폭발시키는 데 쓰이는 화약. 또는 큰일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일.



정부대표민원전화

상담시간 평일 08:00~21:00 / 토요일 09:00~13:00
예약상담 www.110.go.kr m.110.go.kr 휴대전화 문자상담 110
트위터 110callcenter 페이스북 110call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대표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정부민원! 궁금한 일! 불편한 일! 어려운 일이 생기면?

